

종교와 문학을 통한 도통진경 사상의 고찰

楊茂木*

目次

I. 연구의 시각	4. 기독교에서의 도
II. 도란 무엇인가	5. 대순진리에서의 도
1. 공자가 말한 도의 세계와 도교의 역사	III. 도통 구현을 위한 과정
2. 노자 장자의 도	1. 음양합덕
(1) 장자의 도	2. 해원상생
(2) 노자와 도덕경	3. 신인조화
3. 불교에서의 도	IV. 문학작품에 나타난 도통진경
	V. 결 론

I. 연구의 시각

종교의 존재 가치와 최고 이상은 인간 존중이며 인류 구원이다. 우리는 타인과 조화를 이뤄야 살 수 있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같은 환경을 사회 환경이라 한다면 종교에서 추구하는 환경은 정신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사회 환경은 구성원인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지옥도 될 수 있고, 낙원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기계 문명의 범람, 이에 따른 오염으로 인해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이 어려워지고

* 한국정치문화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있다. 인간을 비롯한 자연 생명체가 더불어 사는 이 지구의 환경은 나날이 파괴되고 오염될 대로 오염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다. 꼭 환경 파괴 때문은 아니지만 지구라는 제한된 환경을 벗어나려는 꿈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상적인 낙원을 찾으려는 인간의 꿈은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주를 향해 나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봐도 물과 산이 있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구, 온갖 짐승이 뛰노는 지구와 같은 곳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했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비교적 풍요한 자유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우리에게 인권, 자유, 문화, 예술 등 정신 문화의 발달로 낙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를 상당수 갖추고 있다. 그러나 풍요의 이면에는 환경 문제, 폭력 문제, 성의 범람 등 여러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 못하고 그저 먹고, 입고, 싸고 하는 생물학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급급해 있다. 앞으로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정신 환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인류의 문제를 삶의 숙제로 인식하여 나온 것이 바로 문학 작품들이다. '인간 탐구'와 '인생 표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산문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문학은 표현 기교를 중시하는 미술, 음악 등의 일반 예술과 인류 구원을 꿈꾸는 종교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고, 종교의 역할까지 일부 감당하는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현재 처해 있는 지구 환경은 문학의 힘으로 정화되기 어려운 중병에 걸려 있다. 단순히 환경의 문제를 들어봐도 그렇다. UN의 환경 학자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생명체를 조사하였더니 매년 무려 1만 7천여 종이 나 된다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들이 없어지면 사람 또한 살 수가 없다. 살아 있는 땅이라야 미생물이 살고, 식물이 자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동물과 함께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환경의 파괴가 급속도로 이루어져 당장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행히 우리 민족 종교는 이같은 미래를 예견하고 일찌기 종교를 통한 구원의 사상을 펼친 바 있다. 증산은 일찌기 앞으로의 세계가 후천 개벽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다. 후천 개벽 시대(도수)의 특징은 첫째, 인과가 빠른 시

대라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길흉화복이 인과의 이치로 주교받는다 하여 영산회상의 자리에서 제자인 아난의 물음에 답하는 가운데 삼세인연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원인(因)에 따라 결과(果)가 이루어지기에 선한 행위에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 불행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대순 사상에서는 이러한 인과를 두고 과거 선천 시대에는 금생에 지어 내생에나 받았으나, 후천 시대에는 금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내생에 미룰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증산은 일찌기 서로 불행하게 당하거나 피해를 입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며, 이미 지은 척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원(解冤)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살아야 하는 시대이기에 서로 맺힌 한을 푸는 해원을 거쳐야 상생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대순진리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네 가지이며, 이는 모두 후천세상을 주도하는 이념으로 표방된다. 대립된 두 가지 요소의 조화를 통해 완성을 이루는 음양합덕을 바탕으로 하는 가운데 해원상생이 이루어지고, 신인조화를 거쳐 마침내 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낙원 세계인 도통진경을 이룰 수 있다. 도통진경은 풍요와 화합의 세계이다. 도를 바로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이 '도통'의 경지이며, 그 결과로 우리들이 만나고 이르게 되는 곳이 '진경'임을 대순 진리의 「전경」에서는 여러 증거를 들어 밝히고 있다. 본고에서는 대순 사상의 핵심을 나타내고 있는 종지(宗旨) 중에서 도통진경을 중심으로 그에 담긴 인류 구원 사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일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이 도통진경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말함으로써 종교와 문학의 접점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동서양 철학과 종교에 나타난 도의 개념을 파악함과 동시에, 도통진경이 바로 이러한 도 사상들의 완결형이자 구원 사상임을 구명하고자 한다.

II. 도란 무엇인가

도란 동양 철학에서 나온 말이다. 도는 인간이 따라야 할 법칙이며 자연

의 원리이기도 하다. 동양 철학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공자는 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으로서 사용하여 후세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노자나 장자는 우주 만물의 근원, 근본원리, 즉 절대에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그들 학설의 근간을 이루었다. 동곽자(東郭子)가 장자에게 「도」에 대해 물어본 대목을 보자.

“동곽자가 장자에게 이른바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장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없는 곳이 없다. 동곽자가 또 말하기를, 구체적으로 한정해서 지적할 수 없겠습니까? 장자는 이에 대해 땅강아지와 개미에게 있지. 어찌 그런 곳에 있습니까? 쓸모없는 들풀 같은 데 있지. 어찌 더욱 그런 데 있습니까? 벽돌 속에 있지. 어찌 자꾸만 더욱 심해지는지요? 장자는 이에 대해 말하기를, 똥오줌에 있지. 동곽자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았다.”¹⁾

도라는 것은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나 함부로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장자는 보았다. 도라고 이름짓는 것마저도 도가 아닌 절대의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항상 존재하는 하나의 변화 유행(流行)하는 작용으로서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고 하여 어디에 있지 않은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 데 어떠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²⁾는 것이다.

「도」에 대해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³⁾ 맹자는, “도는 하나일 뿐이다.”⁴⁾ 노자는, “성인은 하나의 도만을 굳게 지켜서 천하의 모범이 된다.”⁵⁾ 장자는, “서로 해괴망측하게 상대되어 있으나 도의 입장으로 보면 하나로 통한다”⁶⁾ 라고 말하였다. 또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도의 세계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독교에서는 천국 사상과 구원 사상으로

1) 『莊子』 <知北遊篇>, “東郭子問於莊子曰, 所謂道, 惡乎在? 莊子曰, 無所不在. 東郭子曰, 期而後可. 莊子曰, 在螻蟻. 曰, 何其下邪? 曰, 在稊稗. 曰, 何其愈下邪? 曰, 在瓦甃. 曰, 何其愈甚邪? 曰, 在屎溺. 東郭子不應.”

2) 『周易』 <繫辭傳>, “範圍天地之化而不過 曲成萬物而不遺.”

3) 『論語』 <里仁篇>, “吾道一以貫之.”

4) 『孟子』 <滕文公 上>, “夫道, 一而已矣.”

5) 『老子』 제22장, “聖人抱一爲天下式.”

6) 『莊子』 <제물론>, “恢掩橘怪, 道通爲一.”

도의 세계를 암시하고 있다. 도에 관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대순 사상에서의 도를 논구해본다.

1. 공자가 말한 도의 세계와 도교의 역사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 관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어렵게 변하고 있다. 윤리와 도덕은 땅에 떨어져 자식이 부모를 해하고, 제자가 스승을 나무라는가 하면, 인간 관계가 오직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각 개인은 사리 사욕과 명리 명예를 획득하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등 극도의 이기주의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일수록 진리와 도리를 알아 하루라도 참답게 사는 자세가 절실해진다. 공자는 일찌기 말하기를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좋다”⁷⁾ 라고 했다. 이 말은 공자 자신의 소원이었다고 하겠지만 제자들에게 귀한 간곡한 구도의 충고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진 이 말은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격언으로서 온 인류의 마음에 심어준 금쪽보다 더 귀한 금언이 아닐 수 없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일생을 제멋대로 행동하며 헛되어 보낼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런 삶을 사느니 차라리 단 하루라도 도리와 진리를 깨닫고 사는 게 낫다는 말이다.

공자의 일화는 여러 가지가 전한다. 그 중 노나라 정공 때의 일이다. 정공 14년, 공자 나이 56세가 되었을 때인데 공자는 대사구(大司寇)라는 직책을 받아 마침내 국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공자는 얼굴에 희색이 만연했는데 이를 본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가 닦했다.

“군자는 화가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이 들어와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그 자리를 얻으셨다고 기뻐하시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공자는 “그렇다. 하지만 귀한 몸으로 사람에게 겸손해하는 것을 즐거워한다고 하지 않더냐?” 하고 대답했다.

공자가 조정에서 정사를 보기 시작한 지 7일째 되던 날, 국정을 어지럽힌

7) 「論語」 <里仁篇>, “子曰 朝聞道 夕死可矣.”

다는 죄목으로 대부 소정묘를 처형했다. 이처럼 공자가 국정에 참여하여 기강을 세워나간 지 3개월 만에 노나라는 도의(道義)에 따른 질서가 잡혀가서 사기꾼이 사라지고, 돼지나 염소를 파는 상인들조차 함부로 값을 올리지 못했으며, 남녀가 길을 갈 때는 서로 떨어져서 걷게 되었고, 길에 떨어뜨린 물건이 있어도 주워가지 않게 되었으며, 외지(外地)에서 도성으로 찾아드는 장사꾼이나 여행객들은 관청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서도 마치 자기 집에 돌아온 것처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후 애공(哀公) 16년에 공자에게도 임종이 다가왔다. 공자는 어느 날 일찍 일어나 뒷집을 지고 지팡이를 끌며 대문계를 거닐면서 노래했다.

‘태산은 무너지는가? 대들보는 허물어지는가? 철인(哲人)은 병들었는가?’

이 노래를 들은 제자 자공(子貢)은 비탄에 빠져 중얼거렸다. “태산이 무너지면 나는 장차 어디를 우러러 보나? 대들보가 허물어지고, 철인이 병들면 나는 장차 어디에 의지하나? 선생님께서는 아마도 병이 나시려나 보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나서 공자는 7일 동안 앓다가 숨을 거두었다. 공자는 노나라 애공 16년(기원전 479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공자는 노나라 성이 있는 북쪽 사수(泗水) 언덕에 묻혔는데, 그의 덕을 사모하여 그 주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백여 가구나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 곳이 공리(孔里)가 되었다. 제자인 증자가 전한 ‘공자의 도(道)’는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이어지고, 자사가 죽은 뒤에는 자사의 제자들에 의해 맹자(孟子)에게 전해진다.

『논어』 <양화>편에,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생장은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재가 아님이 없으니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하늘은 도이다. 하늘이 싫어하는 것은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라고 하였다. 이 말은 만물의 운행과 생장은 천리의 이치에 따라 움직이니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도를 따라 행동해야 함을 말한다 하겠다.

이같은 공자의 도의 세계는 그 스스로 자생한 것이 아니라 공자에 앞선 시대부터 있어왔던 도 사상의 면면한 뿌리를 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 후 도교와 신선사상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중국 주왕조의 정치체제가 유럽 중세의 이른바 봉건제가 아닌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주의 봉건제는 씨족제를 기반으로 하는 혈연적인 분봉제로,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원리로서의 천(天, 신)에 대한 숭배와 나란히 조상신 숭배에 대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치체제가 씨족적인 조직 위에서 세워진 이상 조상신과 천신, 양자에 대한 숭배는 결코 모순되지 않으며 반대로 조상신과 천신은 서로 반발하는 일없이 서로간에 새로운 혈연적인 융합관계를 수립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신적인 토대를 갖고 융합되는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면을 발전시켰던 것이 묵가의 인격적인 천이고 정치적, 윤리적인 면을 발전시켜 온 것이 다름 아닌 유가 및 도가의 이신론(理神論)적인 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천의 관념은 공자, 묵자, 맹자, 장자, 순자 등에서 다양한 이론으로 전개됐는데, 오늘날 가장 비종교적인 사상이라고 하는 공자의 사상체계에서도 천신이나 조상신을 결코 무시한 것으로 내버려두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공자가 평생 동안 천에게 빌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논어」 <술이(述而)>篇에서의 언급은 공자가 지상신으로서의 하늘에게 돈독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며 그 마음 밑바닥에는 깊은 갈구를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공자의 사상 근거에는 천으로 향한 깊은 종교적인 면이 잠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와 같은 유가의 천(신)관념이 그대로 후세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아니었다. 전국시대 말부터 성행한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받아 「춘추」와 「맹자」 등에서 이신론적 경향이 나타났고, 그 결과 천(天) 혹은 신의 인격적인 성격은 크게 약화되었다. 즉 이 때의 천은 우주와 세계의 원리적인 존재처럼 되어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에서 철학적 사색의 대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전한(前漢)의 사상계를 풍미한 천인합일설에서는 천과 신이 모두 의지를 가진 인격신이라기 보다는 우주계의 근원적인 이법(理法)이라고 보는데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유가의 독자적인 재이관(災異觀), 감응설(感應說)이

8) 「論語」 <述而篇>, “하늘이 나에게 큰 힘(德)을 주었으니 환뢰가 나를 어찌하겠는가.”; <子罕篇>, “하늘이 이 도를 버릴 뜻이 없다면 匡인들이 나를 어찌지 못할 것이다.”

전개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설이 한대의 사상계를 석권하게 되었다.

음양오행설에 근거한 천의 이법성(理法性)이 강조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도교 교설의 핵심을 형성하는 새로운 이론이 생기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원초적인 신선설로 불로불사의 신선이 되기 위한 방술을 설하는 것이었다. 중국 고대의 역사에 관한 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기」의 봉선서에는 기원전 3, 4세기 경 발해 연안에 위치한 “제(齊)와 연(燕)에서는 제후들이 동해에 있다고 설해지던 3개의 신산(神山; 영주·방장·봉래산)에 사람을 보내서 선약(仙藥)을 구하려고 했다”는 것과 함께 당시 “제후들 가운데 신선설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자가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유명한 진(秦)나라의 시황제(재위: B.C. 221-210)가 방사 서불로 하여금 수천 명의 남녀를 데리고 동해로 가게 해 불사약을 구하게끔 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불로불사를 목적으로 하는 신선도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틀림없는 사실일 것이다.

수년 전 장사시성(長沙市城)의 동남쪽에 있는 초나라 묘에서 전국시대 중기 말 경의 것으로 비단에 그려진 승선도가 출토되었고, 부근 교외에 있는 초대의 묘에서 주나라 말기의 비단승선도가 출토되었다.

중국 역사에 기록된 크고 작은 많은 정치적 반란 중에서 특히 종교적인 성격을 띤 것이 많았는데 후한 말의 황건적의 난, 즉 태평도 교단의 반란도 그 중 하나이다. 이 황건적의 반란은 장각(張角)의 영도로 중평 원년(184)에 화북지방에서 일어났는데 후한 왕조의 잦은 진압대책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방대한 수에 달하는 민중들(주로 농민들)의 열광적인 참여 아래 약 20년간 완강한 저항을 벌여 후한 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이 반란의 큰 힘은 그 사상적 기반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이 독특한 현세적 성격을 가진 태평도 교단의 교법에 의해 강력하게 지탱되고 있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장각은 스스로 대현량사(大賢良師)라고 칭하고 '황노의 도'를 받들어서 제자를 양육하고 교단을 통솔했는데 인간의 병고의 원인을 당사자의 죄과에 두고 그것을 참회 고백하게 했다. 이것이 큰 효과를 내어 불과 10여년 만에 수십만 명의 사람을 신자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들은 모두 황건을 쓰고 황천(黃天, 새로운 정권)이

곧 수립된다고 부르짖음으로써 혁명의 정당성과 필연성을 피력했다. 후한 말에 이르러 생겨난 황노의 관념은 '황노의 도'로서 황노군을 제사하고 장생복락을 구하는 기원의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장각이 받든 이른바 '황노의 도'는 이 교설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황노 신앙이야말로 현세주의적인 정신 위에 육체적인 치병신앙과 정치적인 혁명운동을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민중으로 하여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며", 관군에게서는 "투지를 빼앗아 적수가 되지 않게" 한 강대한 원동력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신선사상은 동양 고대부터 있어온 사상이다. 그러나 『파한집』(破閑集)이나 『환단고기』(桓檀古記), 그리고 우리의 단군신화를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신선신앙(사상)이 있어왔음을 알 수 있다.⁹⁾ 단군신화에는 '천신(天神) 강림'의 사상이 있으니, 그것은 일종의 선민의식의 표현이고, 또 거기에는 '환웅(桓雄, 한울)'으로 상징 표현된 선진적 문화족으로서의 외래 이족의 진입과 또 그것으로 말미암은 웅(熊)으로 상징 표현된 토착 원주민과의 융합 등의 사실이 나타나 있다.¹⁰⁾

신선사상은 중국 고대에도 있었으나 그것은 대체로 동이족, 특히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한민족의 고대 원시문화에서 발생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많은 근거가 있으므로, 그것을 한민족의 원시 고유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원시사상의 원형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단군신화 속에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그것의 사상성이 신선사상으로 일관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신선사상을 곧 한국 고유의 사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신화를 보면 환웅 등은 천선(天仙)으로서 자유로이 지상세계에 왕래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신시(神市)는 지상에 있는 신선세계로 보인다. 단군은 1908세의 불로장생을 했다 하고, 또 거기에다가 죽지 않고 산신이 되었다고 하니, 불로장생 또는 장생불사는 곧 신선의 특징인 것이다.¹¹⁾

이같은 신선사상은 다기화된 사회로 내려오면서 윤리와 도덕에 대한 관심

9) 李仁老, 破閑集, (跋) 柳在永譯註(서울: 일지사, 1978), p. 264.: 金得槐, 韓國宗敎史(서울: 백암사, 1978), p. 40

10) 都班淳 編, 道家思想과 道教(서울: 범우사, 1996), p. 240

11) 같은 책, pp. 266~267

을 낳았고, 공자와 같은 위대한 성인에 의해 일부 사상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공자와 그의 제자들이 밝힌 고전적 유교 철학은 수행에 의해 실천된다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각 사람의 인간적 잠재력을 계발시킬 수 있는 전통적인 인격주의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올바른 인성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랑과 이해와 경외와 지혜에 대한 내적 잠재력을 계발시킨다. 사람은 도에 순종함으로써 하늘과 땅과 군주와 부모와 자식들, 그리고 친구나 동료들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군자(君子)가 될 수 있다.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철학에 따른 군자의 특색은 네 가지 기본 덕목들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우리가 남의 고통과 기쁨을 마치 우리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깊은 공감과 성실함을 수반하는 자비롭고 헌신적인 사랑이다. 이 자비를 인(仁)이라 부른다. 두번째는 의(義)인데 정의감, 책임감, 의무감, 남들에 대한 책임감 등을 의미한다.

사람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덕목이 더 필요하다. 세번째가 바로 예(禮)인데 이는 외적 의식(儀式)의 정확함을 얘기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 예는 부모나 군주 또는 국민만이 아니라 천지(天地)를 향한 존경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행위이다. 이는 남들에 대한 사랑과 의무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하여 의식적 형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고대 중국의 전례가(典禮家)들은 “올바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늘 아래 일어나는 모든 움직임들을, 그들 서로를 꿰뚫어 흐르는 어떤 흐름에 주의하여 관찰하였다”¹²⁾고 말한다. 마지막 네번째로는 지혜가 있다. 지혜는 보다 성숙하고 종교적인 이해를 통하여 삶의 완성에 이르도록 다른 덕목들에 방향을 제시한다. ‘하늘의 길’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이해는 마침내 사람을 성숙시켜 하늘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마음 속의 열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그러나 공자는 그가 일흔이 되어서야 비로소 이 경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하였다.¹³⁾

12) 馮友蘭, 中國 哲學의 精神-新原道-(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1993), p. 89. 易經의 詳述에서

13) 孔子는 말하기를, “나는 열다섯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으며, 서른에는 주장이 섰다. 마흔에는 미혹하지 않았으며, 쉰에는 天命을 알았다. 예순에는 耳順했으며, 일흔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좇았어도 법도에 넘어서지 않았다”고

윤리와 도덕이 땅에 떨어진 사회에서, 인간 관계가 오직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진리와 도리를 알아 하루라도 참답게 사는 자세를 강조한 공자의 사상은 간곡한 구도의 충고가 아닐 수 없다.

2. 노자 장자의 도

(1) 장자의 도

『장자』는 내편, 외편, 잡편으로 나누어지는데, 장자 사상의 핵심은 내편이라 할 수 있다. 내편 중 첫번째 편은 ‘소요유(逍遙遊)’이며 두번째 편은 ‘제물론(祭物論)’이다. 장자사상의 중심은 그 목적이 현실적 고통과 온갖 부자유로부터의 정신적 해방을 구하는 데 있다. 장자는 그 자유 해방의 경계를 상징적으로 ‘유(遊)’자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장자』의 제1장이 <소요유>로 시작되고 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중 혜자가 장자에게 말한 한 구절을 보자.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를 닥나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큰 줄기는 울퉁불퉁해서 먹줄로 쓸 수 없고 작은 가지는 굵어서 잣대로 삼을 수 없습니다. 나무를 길가에 놓아도 목수장이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은 크기만 했지 쓸모가 없어서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외면하는 겁니다.”

이에 장자가 말했다.

“그대는 살쥬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몸을 낮추어 어슬렁거리는 짐승을 기다립니다. 동으로 서로 날뛰며 높고 낮은 데를 가리지 않다가 덧에 치이거나 그물에 걸려 죽습니다. 그런데 이우는 하늘을 뒤덮는 구름과도 같은 거대한 소인데, 이우(鼃牛: 소의 한 가지)는 크기는 하지만 쥐 한마리 잡지 못합니다. 지금 그대는 큰 나무가 있어도 쓸모가 없다고 걱정하는데 어째서 ‘소유가 필요없는 고향’이나 ‘드넓은 들판’에 나무를 심어 그 주위를 자재하게 노닐기도 하고 평안하게 나무 아래 누우려 하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쓸모가 없어 도끼질 당하지도 않고 아무도 해치지 않

했다. 論語爲政: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不踰矩.

을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으니 어찌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¹⁴⁾

장자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생을 사랑하였다. 자기의 생을 생명 있는 것으로 존립케 하려 하였고, 생명을 손상하는 모든 작용을 배제하려 하였다. 생명 없는 질서보다 생명 있는 무질서를 더욱 사랑하였으며, 인생과 우주를 일관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주체적 자아를 추구한다. 장주(莊周)의 자는 자휴(子休)이며, 쥘신장수로서 생업을 유지했다는 말이 있다. 『사기』 열전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일부 나오지만 애매한 점이 많다. 장자의 생존 연대도 문제가 되고, 장자의 저서에 대한 의문도 많다. 그러나 장주는 타고날 때부터 숙명적으로 가난, 고독, 생명의 위협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은 분명한 듯하다.¹⁵⁾

장자는 평생 지혜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살았다. <소요유>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편협한 지혜는 탁트인 지혜에 미치지 못하고, 짧은 목숨은 긴 수명을 알지 못한다. 어찌 이를 아는가? 하루살이 버섯은 한 달을 알지 못하고 쓰르라미는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이 하루살이와 쓰르라미가 바로 수명이 짧은 생명체이다. 초나라 남쪽에 명령(冥靈)이 살고 있었는데 5백년 동안을 봄, 5백년 동안을 가을로 삼고 살았다. 또 아주 오랜 옛날에 대춘이란 나무가 있었다. 8천년 동안을 봄, 8천년 동안을 가을로 삼았다 한다. 그런데 팽조는 요즈음 오래 산 인물로 특히 유명해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오래 살려고 발버둥친다. 이 어찌 슬프지 아니한가!

은나라 탕왕이 신하 극에게 물은 것도 이와 같은 내용이다. 궁발의 북쪽에 명해라는 바다가 있다. 그 곳에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는데 크기가 수천 리에 달해 정확한 길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 물고기 이름은 곤이다. 거기에는 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이름은 봉이다. 봉의 등은 태산과도 같고 날개는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과도 같아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구만리나 솟아오른다. 구름 위로 솟구쳐 푸른 하늘을 등에 진 연후에 남쪽으로 날아간다. 이처럼 남명으로 날아가는 봉을 연못의 메추라기가 비웃으며 말했다.

14) 『莊子』, 안동림 譯註(서울: 현암사, 1992), p. 43. <逍遙遊> 참조

15) 같은 책, pp. 13~16

‘저놈은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나는 힘껏 날아올라도 몇길 지나지 않아 아래로 다시 떨어져 속대밭 사이를 나는 것이 고작인데 저녀석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것이 바로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이다.”

곤과 붕처럼 지극히 큰 것을 매추라기 따위의 작은 것과 비교하면서 장자는 자기의 세속적 주관 혹은 소유욕을 버리고 무궁한 자유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자유 경지의 도달만이 참된 자기 생명의 존중이라는 것이다.

“교외로 나가는 사람은 세끼 식사만 하고 돌아와도 여전히 배는 부르다.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밤새도록 식량을 짊어야 하고, 천리길을 떠나는 나그네는 세 달 동안 식량을 모아야 한다. 이 두 벌레가 어찌 이를 알겠는가?” 라고 장자는 말한다.

도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의 바탕이 있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도를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짧은 지혜로 따져보려 한다. 장자가 견오와 연속의 얘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같은 인간의 아집과 단견이다. 견오가 연속에게 물었다.

“접여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터무니없이 황당하고 나아갈 줄만 알고 되돌아올 줄 모르더군. 그 이야기는 하늘나라 은하수같이 끝이 없어 나는 놀랐네. 세상일과는 크게 어긋나 상식과 맞지 않더군.”

연속이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러는가?”

“막고야라는 산에 신인이 살고 있는데 그의 피부는 눈이나 얼음처럼 하얗고 처녀와도 같이 아름답다더군. 그는 오곡을 먹지 않고 바람이나 이슬을 마시며 용을 부려 사해밖에서 노닌다는 게야. 그의 마음은 정(定)에 들어 있어 만물을 병들지 않게 하고 해마다 곡식이 잘 익게 한다더군. 이렇게 허황되니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이지.”

이에 연속이 말했다.

“그렇게야. 장님은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없고, 귀머거리의 은은한 종소리를 들을 수없는 법이지. 어찌 육신에만 봉사와 귀머거리가 있겠는가! 사람 마음에도 또한 장님과 귀머거리가 있다네 마음이 귀머거리와 장님이란 이야기는 바로 자네를 일컫는 말일세. 그 신인은 자신의 덕으로 만물을 화합시켜 하나로 만듦에, 세상사람이 다스려 주기를 바라지만, 무엇 때문에 초철허하게 천하 다스리는 일을 하겠는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물에 의해서도 해칠 수없다네. 큰 홍수가 나서 물이 하늘까지 이르더라도 그를 적실 수조차 없고 큰 가뭄이 들어 금속과 암석이 녹아내리고

산이 불탈 지경이라도 그는 뜨거운 줄도 모른다네. 신인은 먼지나 티끌
혹은 곡식의 빈 껍데기로도 요임금이나 순임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천하 다스리는 일 따위를 하겠는가!"

신선의 세계는 이처럼 신비로운 것이다. 장자가 말하려는 지식에 대한 담
론은 일상적 지식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통하여 전개되며, 도의 통찰을 통해
서 한 차원 더 높은 순수직관의 경지에 도달하도록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지식론을 통해 왜곡되고 막힌 우리의 의식을 정화하여 잘못된 지식 및
개념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다.

장자는 <제물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릇 자기의 주관적 관념으로 구성된 마음을 스승으로 삼는다면 누군
들 스승이 없을 것인가? 하필 순수 지속적인 자연의 활동을 알 필요가
무엇이며, 제 마음으로 취하면(즉 제 관념대로 알면) 될 것이니, 그렇다
면 어리석은 자라도 이런 스승은 있을 것이다. 아직 주관적인 관념에 따
른 편견이 없는데도 시비가 있다면 이는 오늘 월(越)나라로 떠나서 어저
께 도착했다는 것(즉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니, 이는 실재는 없
는 것으로써 있음을 삼는 것이다. 없는 것으로써 있음을 삼는다면 비록
신령한 우(禹)임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알 수 없을 것이어늘, 내가 어찌
그것을 알겠는가?”¹⁶⁾

장자는 인식의 주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인식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사물에 대한 시비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소요유>의 또다른 인용을 보면 그
같은 장자의 생각이 좀더 명확해진다. 혜자가 장자에게 말했다.

“위나라 왕이 내게 큰 박씨를 주길래 이를 심었더니 나무의 열매가 다
섯 석(한 말의 열 감절)이나 될 정도로 크더군요. 물을 담는 그릇으로
쓰면 너무 무거워 쉽게 옮길 수 없고 쪼개고 바가지로 쓸 경우 납작해
아무 것도 담을 수 없었습니다. 크기만 컸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부
수어 버렸지요.”

이에 장자가 말했다.

16) 같은 책, <제물론>, p. 43

“그대는 참으로 큰 것을 쓸 줄 모르는군요. 송나라 사람 가운데 손을 트지 않게 하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약을 손에 바르고 빨래하는 일을 대대로 하고 있었지요. 어느 길손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약 만드는 비방을 많은 돈을 주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족을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우리가 대대로 빨래하는 일을 해왔으나 돈벌이가 변변치 못했다. 그러나 지금 이 기술을 팔면 하루 아침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으니 이 기술을 팔기로 하자’ 그래서 나그네는 비법을 얻게 되었지요. 그는 오나라 왕에게 약의 효능을 설명했는데, 마침 월나라가 오나라를 침략하자 오나라 왕은 그를 장수로 삼았습니다. 마침 겨울에 수전(水戰)을 하게 돼 약이 귀하게 쓰였고, 월나라를 크게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오나라 왕은 그에게 땅을 주고 다스리게 했습니다. 손 안 트게 하는 약 하나로 어떤 사람은 벼슬을 얻게 되고 어떤 사람은 빨래하는 일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동일한 약이지만 쓰는 용도가 달랐던 겁니다. 지금 그대에게 다섯 석이나 되는 박이 있는데 어째서 그것으로 큰 배를 만들어 강이나 호수에 띄울 생각은 않고 납작해 아무 것도 담을 수 없다고 걱정합니까? 그대는 참으로 꼭 막힌 사람이군요.”

예컨대 물이 많이 고이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 없는 법이다. 한잔의 물을 움푹 패인 곳에 부으면 겨자씨를 배로 삼을 수는 있으나, 잔을 그곳에 띄우면 곧바로 바닥에 닿아 버린다. 물은 얇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이처럼 지혜의 그릇이 크고 넘쳐야만 세상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다. 장자의 <제물론>을 보자.

“대체로 말이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만은 아니다. 말에는 뜻이 있다. 그 말의 뜻이 애매하여 뚜렷하지 않다면 과연 말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일까. 그래도 새새끼 소리와는 다르다고 한다면 거기에 구별이 있을까, 없을까. 결국 구별이 없다. 그리고 속인의 말에는 이런 예가 많다. 도(道)는 본래 상대적인 진실과 허위 따위를 초월한 것인데 어디에 가려진 채 진실과 허위가 나올까. 말은 본래 소박한 것인데 어디에 가려진 채 시비가 나올까. 참된 도는 어디에나 다 있고, 소박한 말은 어디서나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그 도는 인위적인 잔재주에 가려지고, 말은 화려한 수식 속에 파묻힌다. 그러므로 유가와 묵가의 시비가 벌어져서 상대가 나쁘다는 것을 좋다고 하고, 상대가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한다. 상대자 나쁘다는 것을 좋다, 상대가 좋다고 하는 것을 나쁘다고 하려면, 그런 것을 초월한 명지(明智)의 처지에 서느니만 못하다.”¹⁷⁾

17) 같은 책, <제물론>

장자는 여기서 언어와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의 불일치를 지적했으며, 이 때문에 언어가 실상 자체를 인식하는 데는 제약이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두 가지 서로 다른 명제가 동시에 제기될 때, 우리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참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셈이다.

“사물은 저것 아닌 것이 없고 또 이것 아닌 것도 없다. 이쪽에서 보면 모두가 저것, 저쪽에서 보면 모두가 이것이다. 스스로 자기를 저것이라고 한다면 알 수 없지만 스스로 자기를 이것이라고 본다면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고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난다고 한다. 저것과 이것은 저 헤시가 말하는 방생(나란히 함께 생긴다)의 설이다. 헤시가 말하듯이 삶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삶이 있다. '된다'가 있으면 '안 된다'가 있고, '안 된다'가 있으면 '된다'가 있다. '옳다'에 의거하면 '옳지 않다'에 기대는 셈이 되고, '옳지 않다'에 의거하면 '옳다'에 의지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세상일은 상대적이므로 성인은 그런 방법에 의하지 않고 그것을 절대적인 자연의 조명에 비추어 본다. 그리고 커다란 긍정의 세계에 의존한다. 거기에 머물면 이것이 저것이고 저것 또한 이것이다. 또 저것도 하나의 시비이고 이것도 하나의 시비이다. 과연 저것과 이것이 있다는 말인가. 과연 저것과 이것이 없다는 말인가. 저것과 이것의 대립을 없애 버린 경지, 이를 도추(道樞; 도의 지도리)라고 한다. 지도리이기 때문에 원의 중심에 있으면서 무한한 변전(變轉)에 대처할 수 있다. 옳다도 하나의 무한한 변전이며, 옳지 않다도 하나의 무한한 변전이다. 그러므로 시비를 내세우는 짓은 명지의 처지에 서느니만 못하다고 한다.”¹⁸⁾

장자의 <제물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고르게 하는 이론'이라는 뜻이다. 장자 철학의 근본이라고 할 유일 절대(唯一絕對)의 '도'의 입장에서 현실 세계의 갖가지 현상, 그 중에서도 시비(是非) 선악(善惡) 미추(美醜) 정사(正邪) 화복(禍福) 길흉(吉凶) 각몽(覺夢) 생사(生死) 등을 명확히 구분하려 하는 상대적 가치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의미한가를 뚜렷이 밝히고, 하늘 높이 날아 오르는 대붕(大鵬), 즉 절대자(자유인)의 조건은 만물이 하나임을 깨닫고 궁극적인 '하나'의 세계로 돌아가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장자

18) 같은 책, <제물론>

는 그러한 절대자의 생활을 성립시키는 논리,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실천적 근거를 또한 밝히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제물론> 한 편은 『장자』 33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난해한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겠다.

『장자』 <재유(在宥)>편에서는, “천에 밝지 못하면 덕에 전할 수 없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 천도가 있고 인도가 있다. 무위하며 존귀한 것은 천도이고, 유위하며 누가 됨은 인도이다. 주인과 같은 것은 천도요, 신하와 같은 것은 인도이다. 천도와 인도는 차이가 매우 커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고 한 말이 있다. 천지인을 동등한 하나로 본 우리의 전통 사상과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역시 인간 존중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언제인가 장주는 나비가 된 꿈을 꾸었다. 훨훨 날아다니는 나비가 된 채 유쾌하게 즐기면서도 자기가 장주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문득 깨어나 보니 틀림없는 장주가 아닌가. 도대체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나비가 꿈에 장주가 된 것일까? 장주와 나비에는 겉보기에 반드시 구별이 있지만 절대적 변화는 아니다. 이러한 변화를 물화(物化; 만물의 변화)라고 한다. 장자는 도라는 개념을 내세워 모든 현실적인 인간 생활의 온갖 구속에서 벗어나 순수한 자유 해방을 실현하려는 고차적인 정신세계를 추구했다. 도의 정신을 체득하고 도와 일체가 됨으로써 일상 생활에서 자유를 맛보고자 한 것이다.

(2) 노자와 도덕경

『도덕경(道德經)』은 중국의 사상가인 노자(老子)가 지었다고 전해진다. 『노자』 또는 『노자도덕경』이라고도 한다. 도가철학의 시조로 불리우는 노자는 약 5,000자, 81장으로 되어 있는 『도덕경』을 지었는데, 실제로는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여러 차례에 걸쳐 편집된 흔적이 있고,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변형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서기전 4세기경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고정되었다고 여겨지는 이 책은 상편 37장의 내용을 ‘도경(道經)’, 하편 44장의 내용을 ‘덕경(德經)’이라고 한다. 판본은 여러 가지가 전해오고 있는

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漢)나라 문제(文帝) 때 하상공(河上公)이 주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하상공본과, 위(魏)나라 왕필(王弼)이 주석하였다는 왕필본의 두 가지이다.

원래 상하로만 나누어졌던 『도덕경』은 한대(漢代)에 들어와서 장·절로 나누어진 것으로 보인다. 『도덕경』은 도가학파의 손에 의하여 오랜 기간에 걸쳐 당시의 여러 사상을 융합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데 노자를 공자(孔子)와 같은 시대의 실존인물로 보는 사람들은 『도덕경』을 그의 작품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도덕경』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많은 문제점과 상반된 처지에도 불구하고, 『도덕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기본사상이 변함없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 『도덕경』의 사상은 한 마디로 무위자연(無爲自然)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장자의 사상 역시 노자를 계승한 것이다. 노자의 사상은 ‘도’에 근거한 것인데 장자의 사상 또한 노자의 도를 기초로 한 것이다. 노자가 말한 도란 우주 본체와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의 형성원리의 혼합체다.¹⁹⁾ 그러므로 도는 형상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무위는 “도는 언제나 무위이지만 하지 않는 일이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의 무위이고, 자연은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天法道道法自然)”의 자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도덕경』의 사상은 모든 거짓됨과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려는 사상이다. 좋다/나쁘다, 크다/작다 등의 판단들은 인간들이 인위적으로 비교하여 만들어낸 상대적 개념이며, 이런 개념들로는 도(道)를 밝혀낼 수 없다는 것이다. 언어라는 것은 상대적 개념들의 집합체이므로 『도덕경』에서는 언어에 대한 부정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유가사상과 현격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유가사상에서는 인위적 설정이 강조되는 예학(禮學)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으며 언어에 의한 규정이 강력하게 요청되기 때문이다. 반면, 『도덕경』에서는 규정성의 파괴와 언어에 대한 부정을 강조한다. 유가사상이 중국 북방의 황하유역에서 형성된 것인 반면, 이런 무위자연의 사상은 중국 남방의 양쯔강 유역에서

19) 韋日春, “莊子の无无思想,” 都瑠淳 편, 앞의 책, p. 225

형성되었다는 기질적인 차이로 설명되기도 한다. 즉, 북방은 생존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투쟁적이어야 하였지만, 남방은 날씨가 온화하고 자연조건이 순조로워 평화적이고 낭만적이었는데 이런 분위기의 차이가 사상 형성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유가사상이 인(仁)·의(義)·예(禮)·지(智)의 덕목을 설정하여 예교(禮敎)를 강조하면서 현실적인 상쟁대립이 전제된 반면, 『도덕경』의 사상은 상쟁의 대립이 인위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보고, 무(無)와 자연의 불상쟁(不相爭) 논리를 펴나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는 『도덕경』의 사상은 학문적인 진리 탐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지만, 위/진, 남북조시대처럼 사회가 혼란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혜를 밝혀주는 수양서로서도 받아들여졌으며, 민간신앙과 융합되면서 피지배계급에게 호소력을 지닌 사상 및 세계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관련자료에는 『삼국사기』 권 24 백제본기 2 근구수왕 즉위년조에 근구수왕이 태자로 있을 때 침입해온 고구려군을 패퇴시키고 계속 추격하려 하는 순간, 휘하의 장수 막고해(莫古解)가 다음과 같이 간언하였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듣기로는 도가의 말에, 족함을 알면 치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얻은 것이 많은데 더 욕심을 내어서 무엇합니까?” 이 말을 듣고 추격이 중지되었다고 하는데, 이 구절은 『도덕경』 제44장에 나오는 말이다. 『도덕경』 구절이 장수의 입에까지 오를 정도였다면 당시 사회에서는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졌던 것임에 틀림이 없고, 나중의 일이지만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乙支文德)도 비슷한 내용의 시를 수나라의 장수에게 보낸 것이 『삼국사기』에 나타나 있다. 『삼국유사』 보장봉로조(寶藏奉老條)에는 당나라 고조(高祖)가 고구려인의 오두미교신봉 이야기를 듣고 624년 천존상과 함께 도사를 보내어 『도덕경』을 강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 이듬 해 영류왕은 당나라로 사신을 보내어 불(佛)/노(老)를 배우고자 하였고 고조는 이를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보장왕이 연개소문(淵蓋蘇文)의 건의에 따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배우도록 하였는데, 당나라 태종(太宗)이 도사 8명과 『도덕경』을 보내주자 왕은 기뻐하며 승사(僧寺)를 지어 도사를 거처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신라에서는 575년 화랑도를 만들고 그 정신을 현묘지도(玄妙之道)라 칭하였는데, '현묘'라는 말은 『도덕경』 제1장에 나오는 “현지우현 중묘지문(玄之又玄衆妙之門)”을 연상시키는 용어로 도가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통일신라 말기의 혼란한 상황에서 도술연구에 골몰하였던 김가기(金可紀)에 대해서는 홍만종(洪萬宗)의 「해동이적(海東異蹟)」에 나타나 있는데, 그는 「도덕경」을 비롯하여 여러 선경(仙經)을 계속해서 낭송하고 수련을 계속한 끝에 신선이 되었다고 한다. 고려 때는 왕 중에서도 도교신앙이 제일 돈독하고 재위 당시 도교가 융성하였던 예종이 청연각(淸燕閣)에서 한안인(韓安仁)에게 명하여 「도덕경」을 강론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인다. 이처럼 경을 강론시켰을 정도이므로, 당시 「도덕경」을 연구하던 사람의 숫자도 많았고 수준도 높았으리라 짐작된다. 조선조에 와서는 엄격한 주자학적 사상(朱子學的思想)과 그 배타적 성격 때문에 「도덕경」에 대한 연구가 위축되었지만, 유학자들 가운데서 주석서를 펴내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던 사람들이 있었다. 박세당(朴世堂)은 「신주도덕경(新註道德經)」을 저술하였고, 이이(李珣)는 「도덕경」 81장을 40여장으로 줄여 「순언(醇言)」이라는 주석서를 썼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도덕경」에 관한 관심은 희박하였는데, 그 이유는 자신 이외는 모든 사상을 이단으로 보는 성리학의 성격 때문이었다. 그러나 「도덕경」의 기본 흐름은 일찍부터 도교신앙과 접합되어 오면서 민중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혀 기층의 민간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3. 불교에서의 도

불교는 '나'를 섬기는 종교이다. 내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깨닫는자, 그가 곧 부처이다. 불교는 또다른 '나'인 다른 모든 사람, 곧 중생을 섬기는 종교이기도 하다. 내안에 잠자고 있는 불성을 찾아내는 것이 불교의 수행과정이다.

불교에서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는데 이는 곧 사성제(四聖諦)이며 고통(苦諦), 집(集諦), 멸(滅諦), 도(道諦)라고 말해진다.²⁰⁾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 고통의 근원,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

는 것이다. 아 심오한 진리는 우리가 소위 논리라고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식으로서는 얻을 수 없으며,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장엄한 진리이며, 마음의 안정을 주는 것이다. 우리에게서 우리가 조건 지어진 존재의 법칙을 따른다는 것과 서로 의존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우리 몸에 느껴지는 감각의 유혹과 윤회의 근본이 되는 것들을 버린다는 것, 또는 욕망을 버리고 초연히 삶을 산다는 것, 열반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그 깨달음의 세계는 기쁨이 넘쳐 지속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니르바나(無餘涅槃)²¹⁾라고 한다.

불교의 출발은 모든 것이 고(苦)라는 상황인식에서 출발한다. 석가모니 부처가 제일 먼저 설한 불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四聖諦)에서도 제일 처음이 바로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苦聖諦)이다.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는 것이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가 출가한 동기도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모습만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는 괴로움은 숨겨둔채 느끼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좀 더 즐겁고 행복한 것일 뿐이다. 우리의 미혹된 마음이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인생에 대한 불교의 비유 중에 인수정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이가 들관을 가다가 사나운 코끼리를 만났다. 그 사람은 코끼리에 쫓기다가 보니 마침 마른 우물이 있어 칙닝쿨에 의지해 그 안으로 피했다. 그런데 밑을 보니 커다란 뱀 한 마리가 내려오길 기다리며 혀를 날름거리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벽에는 작은 뱀들이 들락거리고. 그래서 그 사람은 오도가도 못하고 칙닝쿨에 매달려 있는데 흰 쥐, 검은 쥐 두 마리가 번갈아가며 칙닝쿨을 갇아대는 거였다. 큰일 났다 싶은데 위를 보니 벌집이 있어 벌이 왔다갔다 하며 그 사람의 입을 향해 꿀을 떨어뜨리는 거였다. 그 사람은 그만 그 꿀의 단맛에 취해서 코끼리도, 뱀도, 쥐도 다 잊고서 꿀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매달려 있었다.

20)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pp. 29~31

21) 니르바나(Nirvāna): 열반. 불교의 최고 이상. 생사를 초월해서 나고 죽음이 없는 법을 체득한 경지를 말한다.

여기서 코끼리는 무상한 세월이고, 우물은 우리의 육체, 큰 뱀은 죽음, 작은 뱀은 여러 가지 괴로움들, 흰 쥐 검은 쥐는 각각 낮과 밤을 나타내고 꿀은 우리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이는 어떤 즐거움 내지 쾌락을 뜻한다. 이렇게 우리는 작은 쾌락들에 정신이 팔려서 무상한 세월이나 죽음에 대한 공포를 다 망각하고 있다. 살아가는데 괴로움 말고도 기쁨이나 아름다움, 즐거움이 많을 수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기쁨이나 아름다움, 즐거움은 한순간에 불과하다. 큰 기쁨도 잠시고, 아름다운 꽃도 지기 마련이고, 푸른 하늘에도 먹구름이 끼이고, 즐거운 순간도 지나고 나면 허망하다. 이렇듯 항상하지 않기에 고통스러운 것이다.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괴로움이라고 하였는데 왜 늙고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무상, 無常) 때문이다. 이 현상계에서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 즉 항상하지 않다는 말은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한다. 이렇게 항상하지 않은 것을 항상 하게 만들려고 하니 힘이 들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괴로운 것이 바로 죽음이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도 죽기 싫어서 불로초를 찾아 해매었다.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는 모두들 두려워 벌벌 떠는 것일까? 그것은 여태까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기 때문이다. 살아가는데 있어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것이 괴로움이라면 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일까. 바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라 했다.

괴로운 걸 알았다면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원인을 알아야 한다. 기독교에서는 그 괴로움이 인간의 원죄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원래 인간은 창조주의 모습과 인격을 본따 만든 것이어서 괴로움이 없는데, 그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함으로써 모든 괴로움이 잉태되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당으로 가려면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 섭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처는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의 잘못된 집착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는 허망되고 무상한 것을 가지고 집착하는 것 때문에 괴롭다는 것이다.

그러면 괴로움의 근원을 끊는 방법은 무엇인가. 집착을 끊고 깨달음에 이

르는 것이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한 진리'가 바로 도성제(道聖諦)이다.

부처는 사람들이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는 하늘나라(신의 세계)가 과연 영원한가를 살피고는 하늘나라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했다. 하늘나라의 복이 다하면 결국 다시 이 고통스러운 세상에 태어나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쾌락을 살펴보니 이 역시 참다운 행복이 아니었다. 그래서 부처는 내세를 위해서, 해탈을 위해서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현재의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바른 길이 아닌 극단의 잘못된 길이라 하고 육체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욕망을 잘 단속하여 육체를 다스리는 수행의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바로 중도(中道)이다.

중도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할 때면 자주 인용하는 것으로 현악기의 비유가 있다. 부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고자 용맹정진하였다. 잠도 제대로 안 자고 몸이 부숴져라 수행을 했는데도 좀처럼 성과가 없었다. 그래서 자기는 깨닫기는 글렀다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갈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부처가 이 모습을 보고 이유를 물었다. 이유를 듣고 난 부처가 말했다.

"네가 출가 전에는 무슨 일을 하였느냐?"

"악사이었습니다."

"그럼, 하나 묻겠다. 현악기의 현을 너무 느슨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이 너무 느슨하면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팽팽하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현을 너무 팽팽하게 한다면 곧 끊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바른 음이 나오는 상태를 부처는 중도라고 비유하였다. 불교 경전에 보면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고 중간도 좋아야 한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중도를 잘 표현해 놓은 말일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직 고통의 극복에 관한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성제는 그 해석의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여도, 대승에서도 잘 설파되는 가르침이다. 화엄경에서도 사성제품이 있어 여래의 모든 가르침은 이 사성제에 귀결된다고 하였다. 불교는 무지가 극복되고 지혜와 깨달음을 이루면 그것을 인으로 하여 고통이 소멸된다고 본다. 인간은

불교가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고통 극복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런 점을 볼 때 불교는 절대적인 자연법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생들은 고통을 회피하고 극복하고자 하나 그 지혜가 없어 윤회속에 고통을 반복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한다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인생의 목적은 고통을 멀리하고 행복을 이룩함에 있다고 하였다.

불교에서는 고통이 소멸하고 해탈 열반을 이룩하면 네 가지의 공덕이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항상하고 즐겁고 참나이며 깨끗함이 그것이다. 이를 상락아정(常樂我淨)이라고 한다. 이것이 불교 행복의 조건인 셈이다. 고통 극복의 사성제의 정신은 인생을 핍박하는 고통에 대한 그 극복만을 추구한다는 실천적 태도이다.

경전을 보면 부처는 제자들에게 나뭇잎을 몇 개 주고는, “너희는 네손의 나뭇잎이 많은가 아니면 이 숲 속의 나뭇잎이 많은가?” 라고 물었다. 그리고는 “이와 같다. 나의 깨달음은 저 숲 속의 나뭇잎처럼 무량하나 오직 사성제의 가르침만을 그대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사성제 외에는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경전에는 또 독화살을 맞은 자가 있어 쓰러져 신음하니, 누가 그 화살을 빼어내어 구명하고자 하나 그는 만류하기를, “안 됩니다. 나는 누가 이 화살을 쏘았으며 이 화살의 대가 무슨 나무로 만들어졌는가 등에 대하여 알아내지 않고는 절대로 화살을 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였다. 이는 사성제 정신과 동일한 것으로 인생의 당면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불교의 주제라는 뜻이다. 우리는 각종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형이상학적 문제 등등 인생의 고통 극복과는 거리가 먼 일에 자신을 소모하는 것을 종종 주위에서 찾아 볼 수가 있는데 사성제 정신은 그것을 경계한다 하겠다.

이 고통 극복은 다른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화엄경의 사성제 품에는 이에 대한 무수한 용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죄(罪)도 그 중 하나이다. 고통이나 죄나 동일 차원이라는 것이다. 고통이나 죄나 모두 극복대상인 것이며, 고통이 일반적이라면 죄는 윤리적 표현으로 그 명칭만이 다를 뿐이다. 네 가지 중생현실 진단도 그러하다.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 부정(不

淨) 이 네 가지 중에서 사성제는 둘째의 고가 주제가 되었으나 중생의 네 가지 속성 모두를 통칭하는 것이며 넓게는 죄의 관점도 포괄하는 매우 커다란 범주이다. 그리하여 부처는 이 사성제는 코끼리의 발자욱처럼 제일 커서 수많은 중생들의 발자욱을 다 능가하고 또한 포함한다고 하였다.

사성제(四聖諦)를 부처는 의사의 비유로 설명하였다. ‘여기에 환자가 있다. 그는 이러한 증세로 아프다’(苦諦), ‘이것은 무슨 병의 증상이며 그 병의 원인은 이러하다’(集諦), ‘이러한 병은 치료될 수 있다’(滅諦), ‘치료하는 처방은 이러하다’(道諦) 등이 그것이다. 이 사성제를 좀더 세분한 것이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는 올바른 이해(正見), 올바른 생각(正思惟), 올바른 말(正語), 올바른 행위(正業), 올바른 삶(正命), 올바른 노력(正精進), 올바른 기억(正念), 올바른 집중(正定)²²⁾ 등이다. 그러나 부처님은 사성제만으로 충분하다며, “나의 깨달음은 무량하나 내가 너희에게 사성제만을 가르치는 뜻은 바로 사성제 외에는 너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²³⁾ 라고 했다.

실제로 부처가 45년간 설한 모든 가르침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 팔정도를 설한 데 지나지 않는다. 부처는 이해하고 따르는 능력과 수행 정도에 따라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이 팔정도를 설했다. 따라서 불경에 흠어져 있는 수천이 넘는 법문의 핵심은 팔정도에서 발견된다. 이 팔정도의 8가지 범주는 위에서 열거한 순서대로 하나를 수행하고 나서 다음 것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오히려 각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다소간 동시에 수행될 수 있는 것이다. 여덟 가지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각기 다른 것의 행을 돕는다.²⁴⁾

불교에서 흔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번뇌를 들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번뇌를 마치 우리에게 독과 같다고 하여 삼독(三毒), 혹은 삼독심(三毒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삼독(三毒), 삼독심(三毒心)이란 탐(貪), 진(瞋), 치(癡)를 말한다. 그럼, 탐(貪)이란 탐내는 마음을 말하며, 존재하는 것과 존재의 원인에 있어서 그 마음이 물들고 붙잡으려고 하는 성질로 능히 탐내지 아니하는 성질을 방해하

22)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外, 앞의 책, pp. 57~58

고, 고(苦)를 낳는 것을 그 업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거나, 우리의 의지대로 어떤 방향 쪽으로 이끌려고 하는 모든 것을 탐심(貪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탐심은 다시 말하면 색욕(性欲), 식욕(食欲), 재물욕, 명예욕, 수면욕이라고 할 수 있다. 진(瞋)이란 성내는 마음으로 고통과 고통의 원인에 있어서 증오하는 성질을 이루고, 능히 성내지 않는 마음을 방해하고, 불안과 악행에 의한 업을 이룬다고 하였다. 진심(瞋心)이란 노여워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치(癡)란 어리석은 마음으로 이성의 빛이 결여된 것을 말한다. 즉 모든 이치와 일에 있어서 혼미하고 어두운 성질을 이룬다고 하였다. 한 마디로 무엇인가를 잘 모르고, 잘못 행동한다는 얘기이다. 우리의 마음이 본래 청정하고, 모두에게 부처의 성품이 있음을 잘 모르고, 세상의 이치에 밝지 못한 것을 이르는 말이다. 또한 나다 너다 하며 분별하는 마음 역시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이렇듯 치심(癡心)이란 어리석은 마음을 말한다. 탐, 진, 치란 어리석은 마음 때문에 욕심을 부리고, 욕심부리는 마음 때문에 노여워하게 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치심(癡心)을 버리게 되면, 모든 삼독심을 없앤 진정한 도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

4. 기독교에서의 도

기독교에서는 영생, 생명, 천국, 하나님 나라, 구원 등의 용어를 통해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세계, 곧 도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미래에 속한 것들이다. 생명은 본래 미래에 속한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몸과 영혼의 전인적(全人的)인 부활로 바로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영생은 몸과 영혼의 구원을 말한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고린도전서 15: 50)는 것은 혈과 육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간은 모두 생명의 선물을 받았지만 누구를 막론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죽음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언젠가 “죽을 것이 생명에서 삼킨바 되면”(고린도후서 5: 4) 다시는 병과 고통과 죽음이 전혀 없게 되며 의사도 병원도 모두 필요 없게 된다. 영생은 구원을, 몸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히 살고자 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육체적인 생명보다 더 높은 수준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생명이다. 천국이 현재 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는 기독교에서는 영생이 그 천국, 곧 '오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생 또한 이 악한 세대에 소유하고 맛볼 수 있다고 한다. 마태복음 19장 16절-25절을 보자.

“(마태복음 19: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마태복음 19: 17)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마태복음 19: 18)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태복음 19: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마태복음 19: 20)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태복음 19: 21)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마태복음 19: 22)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 23)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마태복음 19: 24)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마태복음 19: 25)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과 사랑의 실천을 알 수 있다. 무소유와 자비 등은 불교나 도의 세계에서 말하는 것과 같다. 실제로 라다 크리슈난 같은 이는 불교와 기독교의 유사점을 말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든 아니든, 이 두 종교는 하나의 위대한 영적 운동의 두 갈래의 표현이다. 낱말의 유사성이나 의미의 공통성 등은 양쪽의 종교적인 염원이 일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이것은 매우 인상깊은 만남이자 종합이다. 부처와 예수는 인간 영혼의 대변혁의 깃발을 한 사람은 힌두교에서, 또 한 사람은 유대교에서 들고 나온 장본인들이다.²⁵⁾

라다 크리슈난(Rada Chrishnan)은 인도인과 유태인이(또는 그밖의 나라가) 영적으로 염원하는 바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들의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들이 비슷한 가르침을 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믿는다. 그는 또 비유의 형태야말로 종교적인 가르침에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두 스승이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한다.²⁶⁾

기독교에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악한 시험을 이겨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 처럼, 진리를 확실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루디아는 바울이 빌립보에서 성경을 가르쳤을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그녀는, 충실한 신도가 되었다. 그래서 온 식구들을 다 기독교도로 인도하고, 사도들을 대접하고자 집으로 초청까지 했다. 그녀는 사도들을 초대하면서 "만일 저를 주의 충실한 신도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면서 간곡히 청했다. 그만큼 그녀는 진심으로 예수를 영접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그녀는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다 받아들였다"고 한다. 기독교에서는 이처럼 형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닌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충실한 믿음의 소유자를 바란다.

전 시대 진보 철학을 수용한 몇몇 사상가들은 미개한 원시로부터 시작하여 고도의 문화와 문명으로 점진적이고 꾸준히 상향되어가는 것으로 역사의 의미를 묘사했다. 진보 철학은 인류의 특성상 언젠가 모는 악과 전쟁, 빈곤 그리고 갈등에서 아주 벗어난 완전한 사회를 이룰 때까지 인류는 진보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여러 사태들을 보면 이 필연적인 진보 개념은 비실재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견해로는 역사가 커다란 나선형처럼 일련의 순환과정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다. 나선의 낮은 지점에서 높은 지점으로 진행하는 데는 상하의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각각의 상승은 약간의 상승에 불과하며 각각의 하락도 앞서의 하락보다 낮지는 않다. 상하의 동작이 반복될지라도 전체로 봐서는 상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주의의 수정론이다.

University Press, London, 1940, p. 186

26) Roy Amor, 성서속의 붓다(서울: 정신세계사, 1988), pp. 144~145

또 다른 역사 해석으로 극도의 염세주의도 있다. 이 견해는 역사의 의미를 술취한 한 마리의 파리가 다리에 잉크를 적시고 백지 위에서 비틀거릴 때 그려지는 그림과 같다고 비유한다. 역사는 그 방향도 의미도 없다는 견해를 내세운다.²⁷⁾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성서적 계시에서 역사 의미의 단서를 찾는다. 즉 역사의 궁극적인 의미는 영감받은 성서에서 기록되고 해석되어지는 하나님의 행위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신의 행위는 신이 정한 목표로 역사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점 때문에 인간의 역사에 대한 기여를 막는 것이 된다. "(마태복음 24: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말처럼 예수가 이 땅에 있었던 이래 1900년 동안 신의 목적은 천국 복음의 역사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신은 주재할 뿐 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중요한 사실은 신이 인간에게 이 사명을 맡겼다는 것이다. 인간이 행하지 않으면 역사의 변화는 이루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은 언제 올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마태복음 24: 1)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마태복음 24: 2)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마태복음 24: 3)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아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은 예수의 재림으로 이 시대가 끝이 날 것으로 기대했다. 천국은 '오는 시대'의 서막이다. 바로 여기에 제자들의 의문점이 생긴 것이다. "이 시대가 언제 종말을 고할까?" "주님은 언제 다시 오며 천국은 언제 시작될

27) 신약 신학자인 볼트만(Rudolf Bultmann)은 "오늘날 우리는 역사의 종말과 목표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역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스펡글러(Spengler)는 진보는 불가능한 것이며 역사는 불가피하게 기울어지고 퇴보하게 되어 있다고 믿었다. 토인비는 문명사에서 역사 의

것인가?” 예수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상세하게 대답했다.

“(마태복음 24: 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태복음 24: 5)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마태복음 24: 6)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마태복음 24: 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마태복음 24: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마태복음 24: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마태복음 24: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마태복음 24: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시대가 과연 그러한 시대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거짓 종교, 거짓 선지자들이 도처에서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다. 전쟁이 계속되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수가 살던 시절에도 로마에는 온갖 전쟁의 참상이 벌어졌었다. 그러한 어둠과 악으로부터 이 시대가 구제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희망을 기독교는 주고 있다. 신약시대의 유대 묵시록은 이 시대가 완전히 악의 지배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신은 인간사(人間事)에 실제적인 참여를 완전히 철회했고 구원은 미래에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신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도 그중 하나이다.

“(마 28: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마 28: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도교 등이 통하는 점이다. 교리의 차이는 있

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통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5. 대순진리에서의 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 등 각 종교는 도의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도를 알고 나면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등 도통을 구현하기 위한 제단계를 거쳐 마침내 도통의 진경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 대순 사상은 역사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대순을 통한 도의 단계적 고찰은 보다 차원높은 역사 발전의 여러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대순 사상에서는 역사를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보고 있다. 대순 사상이란 영원과 순환을 의미한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시작과 끝이 없고, 항구하여 막힘이 없는 세계를 대순은 그리고 있다. 우주의 원리는 도수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 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게 대순의 사상이다. 앞에서 말한 음양합덕도 바로 이 우주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어두움과 밝음을 뜻하는 음양은 도의 세계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된다. 이것을 도라 한다”(一陰一陽之謂道)고 하였다. 우주 만물의 생성과 변화, 그리고 발전은 음과 양의 세계가 작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모든 변동은 이 음양의 유행과 소장으로 이루어지며,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 해가 뜨면 달이 지듯이 성장하고 늙고 하는 등의 자연과 인간의 모든 현상들은 분명히 두 가지 작용이 서로 교체하여 변동한다.

‘도’는 우주 만물의 변화와 생성의 법칙이다. ‘도’는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양의 성질은 시작하는 움직임이며, 음의 성질은 이어받아 계승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 두 음과 양이 교감하고 합덕함으로써 모든 변화가 전개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음양합덕은 모두 양 속의 음과 음 속의 양의 결합이지만, 건곤의 합덕은 순음(純陰)과 순양(純陽)의 합덕, 즉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정음(正陰)과 정양(正陽)의 합덕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순 사상에서는 음양의 헤아릴 수 없는 작용을 신이라 하였다. 이러한

합덕에 의해서 강유(剛柔)가 생기며, 천지의 일을 몸으로 구현하고, 이로써 신명의 일에 통한다는 것이다(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신명과 인간은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한다. “천하의 이치는 마치면 다시 시작한다. 따라서 항구(恒久)하여 막히지 않는다. 항구하다는 것은 일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정하면 항구할 수 없다. 때에 따라 변역(變易)함이 우리가 지킬 영원한 길이다” (주역·程傳)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만물의 변화는 ‘종척유시(終則有始)’ 나 ‘박복지리(剝復之理)’ 에 따라 끊임없이 계속된다. 천지가 서로 감응하고 만물이 변화하고 생성하려면 인간이 먼저 해원하여 마음의 자유를 되찾고, 다음에는 북은 하늘과 땅이 해원함으로써 선천의 부자유한 존재에서 벗어나 진정한 음양합덕을 통한 자유로운 순환 과정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고 또 대순 사상에서는 말한다. 이것이 곧 ‘순음 순양’ ‘정음 정양’ 의 합덕인 것이다.

이렇게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음과 양이 교감을 통해 조화로운 관계를 갖는 것이 합덕이며, 그렇게 될 때 천지가 화합하게 되고 만물이 창달하고 천지가 평안하게 되어 정의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만물이 제대로 된 형상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주자는 “우주는 하나의 태극을 갖고 있는 동시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각기 태극을 갖고 있다” (萬有一太極 萬有各有太極)고 말했다. 모든 객체가 우주적 존재인 것이며 각 개체는 음양의 조화를 통해 합덕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바로 건과 곤, 음과 양이 각자 바른 덕을 지녀야 하고, 양이 음을 받들고 음이 양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사>(象辭)에서는 “천지가 어긋나지만 그 일은 같으며, 남녀가 어긋나지만 그 지향하는 바는 통하며, 만물이 어긋나지만 그 일은 비슷하다” (天地睽而其事同也 男女睽而其志通也 萬物睽而其事類也), <해괘(解卦)>에는 뇌우(雷雨)가 일어남에 따라 “온갖 과실과 초목이 모두 싹이 돋는다” (百果草木皆甲坼), “초목이 무성하다”.(草木蕃)고 하였다. 이는 이질적인 존재의 갈등 속에도 자체 내에 조절 작용이 있어 국극적으로 타협과 화해를 이루어 만물을 화생시킨다는 것이다. 즉 서로 대립되는 두 성질, 즉 음양이 그 덕을 합

하니 강유가 생기고(陰陽合德而剛柔有體-「주역」 <계사전>(하, 6장), 강유의 밀고 당김에 의하여 변화가 발생하고, 한 번 닫히고 한 번 열리고,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 것처럼 음과 양의 합덕에 의해서 새로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듯이 개체와 전체도 조화를 이루게 된다.

대순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 바로 순환 사상인데 이것은 음양 합덕 사상이며, 천지인의 인격적 합일 사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천인합일(天人合一), 지인합일(地人合一), 인인합일(人人合一)이 되는, 즉 미개한 인간을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경지와 땅과 같은 풍성한 성격으로 착하고 자애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여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후천 개벽 사상이 된다.

순환 사상은 『전경』 <고견원려왈지>에서 “지혜란 천지와 같으니 춘하추동의 기운이 있다. … 연월일시와 분(分)과 각(刻)이 돌아가는 것은 이 모두 원형이정한 천지의 길이다”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 年月日時分刻輪廻 皆是元亨利貞天地之道也.) 라고 했다. 이 말은 천지의 운행 법칙을 말하며, 여기서 원(元)은 만물의 시초를 말하고, 형(亨)은 만물의 성장을 말하고, 이(理)는 만물의 완수를 말하고, 정(貞)은 만물의 완성을 말한다. 주희도 대순 사상에서 나오는 말과 같은 뜻의 말을 하고 있다. 즉 주희는 말하기를, “원(元)은 만물의 태어남이요, 형(亨)은 만물의 창무함이요, 이(理)는 열매가 익어감이요, 정(貞)은 그 열매가 이루어짐이다. 열매가 다 익으면 그 뿌리와 꼭지가 떨어지는데 이를 다시 땅에 심어 태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원형이정 사이에 생기가 유행하여 처음부터 간단함이 없으니 이것이 원이 나머지 덕을 포함하여 통천하는 까닭이 된다”²⁸⁾ 라고 하였다. <음양경>에서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神人)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고 하였다. 『순자(荀子)』 <예론(禮論)>에는 “하늘과 땅이 합하여 만물이 생기고 음과 양이 만나 변화가 일어난다” (天地合而萬物生 陰陽接而變化起), <계사전>에 “천지의 큰 덕은 만물로 하여금 부단히 낳아 그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天地之大德曰生) 라고 말하였다.

여기서의 원형이정은 그대로 사계절에 해당된다. 자연계에서의 가장 뚜렷

28) 『周易』, 乾象 本義

한 변화인 사계절의 운행이 천지의 운행이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다시 오는 것이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원시반본(原始返本)」이다. 원시반본이란 우주 만물의 생명이 도(道)의 근원인 무극의 통일 상태로 다시 되돌아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옛 고향으로 환원되어짐을 의미한다. 대순 사상의 도는 인간과 우주가 생겨나기 이전의 절대 자리이며, 천지일월이 춘하추동의 사계절운동을 스스로 무한히 반복하는 운동이다. 그러므로 원시반본은 선천의 분열 과정을 종결짓고, 후천의 낙원세계, 즉 자연세계와 인간이 상합하여 보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완성시키는 통일의 길을 말한다. 그러나 천지가 만물을 변화 생성하게 함은 천과 지의 기운의 상호 조화와 합덕에 의한 교감에 의해 가능하다. 합덕 교감에 의한 소통이 이루어짐은 좋은 낙원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고, 만약 교감은 하되 덕으로 합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질곡의 세계가 열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대순 사상은 생명에 대한 인간 존중 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자연에는 생기가 가득 차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나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이다. 도라고 이름짓는 것마저도 도가 아닌 절대적 세계를 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어디에나 항구히 존재하면서 변화하고 유행(流行)하는 가운데 우주를 이루고 만물을 낳는다.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을 이루는 근간이 되며 그 바탕에는 음과 양의 조화가 자리하고 있다. 증산은 일찌기 “...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道)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 ...”²⁹⁾ 라고 했다. 증산은 은둔자적(隱遁者的)인 자기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살게 되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원상생이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후천의 선경을 세워간다는 게 대순의 사상이다. 도의 끝까지

29) 상제가 전주 이치안의 집에 써놓았던 고견 원려 왈지(高見遠慮曰智)란 글 속에 「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也 ...」란 글귀가 있다. 대순진리회출판부 편, “제생: 43.”,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309

나아가면 마침내 이를 수 있는 세계, 대순의 이러한 세계관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순환 사상이며, 윤회 사상과 만민일체 사상 등 인류 구원 사상이 된다 하겠다.

Ⅲ. 도통 구현을 위한 과정

1. 음양합덕³⁰⁾

대순지침에는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³¹⁾고 명시되어 있다. 증산은 또 “...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道)이 있다(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 ...”³²⁾ 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를 변화의 길(道)을 찾는 것은 바로 음양합덕에 의해서 가능해짐을 암시하며, 대순 사상의 특징이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대순 사상의 이상과 목적을 이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로 도주(道主·趙鼎山)³³⁾가 발표한 종지(宗旨)³⁴⁾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음양합덕 신인 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 등 네 가지이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은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음양의 부조화 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후천 선경은 이 음양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음양합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통한 이같은 후천선경의

30) 음양합덕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31)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32) 같은 책, p. 309

33) 趙鼎山은 을미년인 1895년 12월 4일 경남 함안군 칠서면 회문리에서 단강.성은 조(趙), 존휘 철제(哲濟), 자함은 정보(定普), 존호는 정산(鼎山)으로 후에 도주가 됨.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1.”,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190

34) 道主가 을축년에 무극도(無極道)를 창도·증산을 九天 應元 雷聲 普化 天尊 上帝로 봉안·종지 및 신조와 목적을 정함. 같은 책, “교운: 2-32.”, p. 201

사상은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증산이 성육신(成肉身)하여 인간 세상에 오기 전, 법신(法身)으로서 천지 개벽 이래 인간을 교화할 때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 진리를 밝혔다고 보아진다. 음양합덕 사상의 연원이 주역을 비롯한 동양 사상의 정수와 천부 경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사상을 통해 다져져 왔다고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주역』은 중국 유학의 기본 경전으로, 점사(占辭)로 된 64가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각 항목마다 분류 기호인 괘(卦)가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 괘 아래 각각 6가지의 길흉을 판별한 기록이 짝막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효사(爻辭)라 한다. 또 이러한 괘사와 효사로 되어 있는 것을 역경(易經)이라고 하며, 384개의 효사로 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10개의 괘사와 효사를 해석한 주석과 논술로 되어 있으며, 이것을 ‘십익(十翼)’ 또는 ‘역전(易傳)’이라고 한다. 이 부분은 주로 우주론과 인생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⁵⁾ 다시 말하면, 언어나 문자 이전에 괘로써 자연 현상을 설명한 것으로 천지지도(天地之道), 만물지정(萬物之情), 삼재(三才)로 표현하는 자연과 인간의 문제를 그 내용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³⁶⁾

『역경』은 복희가 창안하고, 은주(殷周)가 교체하는 시기에 주의 문왕(文王)이 8괘를 중첩하여 64괘를 만들었으며, 그보다 약 500년 후에 공자가 나타나 인도(人道)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점서의 폐단을 배격하고 순수하게 철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문왕의 괘효사를 해석했다. 공자는 복희(伏羲)와 문왕의 철학을 계승하여 집대성한 셈이다.³⁷⁾ 여기에 노자가 또한 주역 연구에

35) 이규성 편, 동양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pp. 57~58

36) W. Barrett, ed. Zen Buddhism Selected Writings of D. T. Suzuki, p. 231. 『莊子』 <在有>편에서는 天과 人을 다음과 구별하고 있다. “天에 밝지 못하면 덕에 전할 수 없고, 도에 통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찌할 수가 없다. 도에 통하지 못한 자여, 실로 슬프도다. 무엇을 도라 하느냐. 天道가 있고 人道가 있다. 무위하며 존귀한 것은 천도이고, 유위하며 누가 됨은 인도이다. 주인과 같은 것은 천도요, 신하와 같은 것은 인도이다. 천도와 인도는 차이가 매우 커서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중국 철학이 추구하고자 했던 궁극의 과제인 것 같다. 『노자』, 『장자』, 『역전』, 『중용』 등이 모두 이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37) 주역은 약 4000년의 기간 동안에 복희로부터 주문왕, 공자라는 세 분의 성인이 출현하여 함께 힘을 합해 역학이라는 위대한 철학체계를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후대의 사학자 반고(班固)는 『한서 예문지(漢書藝文志)』에서 “역도

한몫을 담당했고,³⁸⁾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주역은 철학적 사상의 체계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복희가 천지·만물을 근거로 하여 8괘를 그렸다는 사실은 <계사전>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이 신물(神物)을 내니 성인이 이를 본받고, 천지가 변화하니 성인이 이를 본받고, 하늘이 상(象)을 드리워 길흉을 보이니 성인이 이를 본받고, 하수(河水)에서 도(圖)가 나오고 낙수(洛水)에서 서(書)가 나오니 성인이 이를 본받았다(天生神物 聖人則之 天地變化 聖人効之 天垂象見吉凶 聖人象之 河出圖洛出書 聖人則之.)”³⁹⁾

“옛날 복희가 천하를 다스릴 때 우러러 하늘에서 상(象)을 보고, 굽혀서는 땅에서 법칙을 보아 … 이에 8괘를 그렸다. 이 8괘를 통하여神明(神明)한 힘과 소통하고 만물의 실정을 헤아렸다(古者 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 於是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⁴⁰⁾

『주역』은 세상의 모든 일을 상제(上帝)나 천(天)이라는 종교적 인격적인 어떤 존재가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자체에 어떤 질서가 있다는 전제하에 그 질서를 찾고자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격화된 어떤 존재가 우주 만물을 창조, 운영하고 있다고 보지 않고 자연의 이법과 질서 속에서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우주 운행에 일정한 질서가 있다고 믿고 그 질서를 알아내어 모든 인간사에 적용하려 하였다.

우주 자연을 이해하고자 할 때 주역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첫째, 변화하는

는 참으로 깊구나! 세 분의 성인이 이어서 나오고 시대는 원고, 중고, 근고의 세 고대를 지났다” 라고 하였다. 세 분의 성인은 복희, 문왕, 공자를 말하고, 세 고대는 그 세 사람이 활동하였던 시대를 말한다. 「易道深矣 人更三聖 世歷三古」. 金股洙 譯註, 『檀檀古記』(서울: 가나출판사, 1985), pp. 17~20

38) 노자는 공자와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그의 철학적 경향은 공자와는 다르다. 공자는 인도사상이 중심이 되어 쾌효사의 길흉회련의 판단사를 무조건 배격하지 않고, 이성적 철학적으로 역학을 해석하는 데 반하여, 노자는 역학의 형이상학적 방면에 치우쳐 근원으로서의 도를 철저히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후대인들은 공자의 역학을 유가역(儒家易)이라 하고, 노자의 역학을 도가역(道家易)이라고 한다.

39) 『周易傳義大全』, <繫辭傳> 上, 제11장

40) 같은 책, <繫辭傳> 下, 2장

자연 세계이다.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같이 자연 현상에 대해 경외심을 갖는다. 모든 만물이 끊임없이 사라지고 생겨나며, 가득 차고 비고 하는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 사람들은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복희씨가 괘를 그림으로써 우주의 신비를 드러내었다”⁴¹⁾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우주에 대한 의문과 두려움을 복희가 8괘라는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어, 그 동안 베일에 쌓여 있던 우주 자연의 신비를 어느 정도 밝힘으로써 그러한 의문과 두려움을 해소시켰다.

우주 만물은 변동한다. 변동 자체는 일종의 추상적, 보편적 존재의 작용으로 그것이 우주 만물 속에서 유행하여 만물의 차별상을 있게 한다. 이 때문에 「주역」은 주로 자연의 변화에서 일정한 질서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복희가 「—」의 부호를 그린 것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질서 작용을 상징한 것이며, 후대인들은 이것을 「태극」이라 부르며, 우주 근원으로서 또한 「도」를 상징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제나름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움직이므로 각기 나름의 도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형이상자(形而上者)를 ‘도(道)’라 하고, 형이하자(形而下者)를 ‘기(器)’라 한다”⁴²⁾라고 했다.

『주역』에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변동 변화 과정은 반드시 대립적인 두 성질이 서로 밀고 당김에 따라 생긴다고 했다. 그러한 대립적인 성질 중의 하나는 음(陰: --)이고, 그것의 다른 하나는 양(陽: —)이다. 모든 사물과 일의 형세가 이 두 가지 음과 양의 결합, 즉 합덕(合德)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강유(剛柔)가 서로 밀어서 변화가 생긴다” (剛柔相推而生變化)⁴³⁾거나 “강유가 서로 미는데 변화가 그 속에 있다” (剛柔相推 變在其中矣)⁴⁴⁾고 하는 것이 이를 말한다.

<계사전>에는 이런 말이 있다.

“건곤은 역의 문인가? 건은 양물(陽物)이요, 곤은 음물(陰物)이다. 음양이 그 덕을 합하니 강유(剛柔)가 생긴다. 이로써 천지의 일을 몸으로 구

41) 『周易傳義大全』, <序卦傳> 下, 韓 註. “伏羲一畫 揭開宇宙之秘.”

42) 같은 책, <繫辭傳>, “形而上者, 謂之道. 形而下者, 謂之器.”

43) 같은 책, <繫辭傳>

44) 같은 책, <繫辭傳>

현하고, 이로써 신명의 힘에 통한다(子曰 乾坤其易之門邪 乾陽物也 坤陰物也 陰陽合德而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45)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건곤은 역의 문이나 역의 온(綱)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해야만 교감이 잘 되어 만물을 낳으며, “변통하여서 이로움을 다한다”(變而通之以盡利)고 한다. 즉 음양 변동이 자연스럽게 조화하여 순응하면 상득하고, 음양이 서로 합덕(陰陽合德)하지 못하면 불상득하고 만다.

모든 우주 만물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동한다. 그러한 생성 변동은 하늘과 땅이 덕으로서 교감·합덕할 때 가능한 것이다. 덕으로서 합덕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형통하고, 모두 빛나게 된다. 그러나 덕으로서 합덕하지 못하면, 하늘과 땅이 서로 교통하지 않아 만물을 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만물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하늘과 땅, 그리고 음과 양이 덕으로서 잘 조화되어 교감하면 만물이 화생하여 태안(泰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로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게 된다. 혼돈의 극을 달리고 있는 현대 세계는 이같은 불흥과 불통의 세계를 대변한다고 하겠다. 증산은 이처럼 도탄에 빠진 이 나라 백성과 인류를 구제하기 위하여 도(道)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증산은 31세 되던 1901년에 전주 모악산 대원사(大院寺)에 들어가 수도를 시작했다. 수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행 이적을 행하는 능력을 보이다가 그 해 7월 5일에 천지대도(天地大道)를 깨달아 성도(成道)하게 되었다. 그리고 증산은 자신이 천제(天帝)의 권한으로서 후천개벽(後天開闢)의 세계를 만드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행하였으며, 기행이적(奇行異蹟), 치병(治病) 등 보통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연속적으로 행하였다. 또 종도들에게는 태좌정심법(胎坐正心法)을 수련시켰으며, 태을주(太乙呪), 운장주(雲長呪), 시천주(侍天呪), 오주(五呪), 도리원서문(桃梨園序文), 서전서문(書傳序文) 등을 많이 읽게 하여 연력(鍊力)을 쌓도록 가르쳤다.⁴⁶⁾

증산이 39세의 젊은 나이로 화천(化天)할 때 하늘에서는 갑자기 뭉게구름

45) 같은 책, <繫辭傳>

46)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행록,” 앞의 책, 참조

이 사방을 덮더니 뇌성벽력이 일고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지붕으로부터 서기가 구천(九天)에 통하였다고 하며, 그 후 제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포교활동을 하여 오늘의 대순사상으로 이어졌다. 「대순사상은 강증산 구천상제(九天上帝)로부터 천부의 계시를 받으신 조정산 도주(趙鼎山 道主)에 의해 확립되었으며, 이를 유명(遺命)으로 종통(宗統)을 받으신 박한경 도전(朴漢慶 都典)에게로 이어지는 연원(淵源)을 가지고 있다.」⁴⁷⁾

대순 사상은 포덕천하(布德天下)·구제창생·보국안민·지상천국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이념으로서 해원, 상생, 보은을 근간으로 천지공사를 행한 증산의 말을 실천하고 있으며, 윤리 도덕을 숭상하고 무자기(無自欺)를 근본으로 하여 인간 개조와 정신 개혁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대순의 종단 사업은 포덕, 교화, 수도 공부와 구호 자선, 사회 복지, 제반 교육사업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 대순 사상을 실현하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

대순의 이러한 사상은 『전경』, <제생(濟生): 43.>과 <교운(教運): 2-42.> 등에 잘 설명되어 있다. 대순 사상은 『대순지침』에서, “도(道)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⁴⁸⁾고 말한다. 이것은 『주역』 <계사전>에서 말하는 「일음일양지위도(一陰一陽之謂道)」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즉 만물의 생성과 변화의 법칙이 바로 도(道)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의 모든 변동은 음양의 유행과 소장(消長: 줄어 들고 늘어남) 아닌 것이 없고, 모두 이 두 가지 성질을 가지며, 이것을 「일음일양지위도」라고 하는 것이다. 역학에서 말하는 “모든 만물은 각각 하나의 태극을 가진다”(物物各一太極)는 말 또한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이치가 비록 높으나 태극과 무극의 겉에서 나오고, 일용한 사물의 사이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理雖高出於太極無極之表 不離乎日用事物之間)라는 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음과 양이 결합함에 있어서는 그냥 합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매개로 하여 합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증산이 말한 음양합덕 사상이 그것이며,

47)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第一輯」(경기 포천: 大眞大學校 大巡思想學術院, 1996), p. 1

4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4), p. 18

증산의 우주관은 우주보다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사유이고, 이상적 사회 건설(후천 선경)을 위한 관념적 틀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의 창조설, 불교에서 말하는 자연발생적 무시무종설, 또는 신화에서 나타나는 발생설 등과는 달리 증산은 우주를 자연법칙에 따라 생긴 것으로 인정하고 우주가 어떤 질서있는 법칙에 따라 성(成)하고 쇠(衰)하는가를 밝히는 자명설(自明說)을 밝히고 있다.⁴⁹⁾ 여기서 말하는 우주관은 우주 만물이 무이위화(無而爲化)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즉 모든 만물이 법칙에 따라 조화를 이루며, 변화되어 성쇠(成쇠)하고 소장(消長)하는 것으로 본다. 우주의 법칙은 도수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도수란 우주의 질서와 운동의 법칙이고, 우주의 질서를 천지도수라 한다. 천지공사의 우주관은 우주의 모든 질서가 순환하는 것이 천지 도수(天地度數)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증산은 천지 도수는 인간 세계의 모든 인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증산은 “인사는 기회가 있으며 천시는 때가 있으니 그 기회와 때를 기다릴 것이니, 이제 기회와 천시를 억지로 앗아가는 일이 되리라”⁵⁰⁾ 하였다. 즉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놓치면 일을 성사시킬 수 없으며, 그리고 하늘과 땅의 뜻은 일정한 도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천지 도수가 어긋나게 되면 우주의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이변이 나타나게 된다. 선천시대에는 천지 도수가 파괴되어 혼란 상태에 있으며, 그리하여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산은 선천시대의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 하면, 허사가 될 것이요.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이 말은 도수가 중요하다는 뜻이다. 세상의 어떠한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

49) 張乘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p. 47

50)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2-24.”, 앞의 책, p. 124

가 맞지 않으면 성취될 수 없으며, 비록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도수가 맞으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리라.” 51)

증산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고 후천의 선경을 열겠다고 하였다.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선천의 도수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를 실현하여 선경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造化)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52)

“자기가 통일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인류는 제각기 사상이 엇갈려 제각기 생각하여 반목 쟁투하느니라. 이를 없애려면 해원으로써 만고의 신명을 조화하고 천지의 도수를 조정하여야 하고 이것이 이룩되면 천지는 개벽되고 선경이 세워지리라.” 53)

위의 인용문은 선천시대를 진단하고 선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파한 것이다. 먼저 증산은 선천시대는 원한이 너무나 커서 삼계에까지 넘치고 있기 때문에 참혹한 재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았다. 선천시대에는 천상세계, 인간세계, 자연세계 등 삼계가 원한으로 맺혀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간 사회는 상극이 지배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한으로 인한 참혹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고, 해원을 통한 상생으로 선경을 만들 수 있는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우겠다고 하였다. 천지 도수를 바로 세워서 상극세계가 아닌 삼계가 상생할 수 있는 세계를 건설하겠다고 하였

51) 같은 책, p. 271

52) 같은 책, “공사: 1-3.”, p. 98

53) 같은 책, “공사: 3-5.”, pp. 130~131

다.

“이제 그 도수를 써서 물샐 틈없이 굳게 짜놓았으니 제 도수에 돌아당
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54)

“이제 하늘도 뜯어 고치고 땅도 뜯어 고쳐, 물샐 틈없이 도수를 짜 놓
았으니, 제 한도에 돌아 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55)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
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
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이니라.” 56)

“상제께서 여러 종도들의 집에서 선기 옥형(璿璣玉衡) 도수를 정하시니
신경수의 집에 저울 갈고리 도수를, 황용종의 집에 추도수를, 문공신의
집에 끈도수를, 그리고 신경수의 집에 일월 대어명 도수(日月大御命度
數)를 문공신의 집에 천지 대팔문(天地大八門) 도수를 정하고 이 세 종
도의 집에 밤낮으로 번갈아 다니시며 공사를 행하셨도다.” 57)

증산은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칠 수 있는 천지 도수를 정하였기 때문에 새
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라 하였다. 신도를 조화할 수 있는 천지 도수, 예를
들면 ‘선기옥형도수’ ‘저울 갈고리도수’ ‘추도수’ ‘끈도수’ ‘일월대어
명도수’ ‘천지대팔문도수’ 등을 행하여 인간이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하였
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천지공사이다.

이와 같이 증산의 우주관은 개혁사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
은 선천개혁(先天開闢)이 아니라 후천개혁에 더 무게중심을 잡고 있다. 선천
개혁 세상인 선천세계는 무(無)에서 유를 창조하여 이를 성장시켜가는 생장
(生長)시대라 할 수 있는데, 이미 세계 각지에 팽배한 말세적 현상, 핵무기
의 공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선천세계는 음양의 분화(分化)와 다양한
존재의 갈등, 투쟁 대립 등으로 이제 그 종국에 이른 음양 배덕(背德) 음양
분덕(分德)의 세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개될 후천시대에는 음양

54) 같은 책, “공사: 3-37.”, p. 147

55) 같은 책, “교법: 3-4.”, p. 245

56) 같은 책, “공사: 1-3.”, p. 98

57) 같은 책, “예시: 31.”, p. 319

의 배덕과 분덕으로부터 파생된 혼미의 세계를 선경시대로 만들기 위해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 그것이 지니고 있는 덕(德)을 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이상향(理想鄉)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서신(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 쓸 지어다.” 58)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 59)

위 인용문은 천지정위(天地定位)를 말한다. 『주역』 <설괘전>에서 천지(天地), 뇌풍(雷風), 수화(水火), 산택(山澤)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고 하였다. 이를 천지정위, 산택통기(山澤通氣), 뢰풍상박(雷風相薄), 수화불상사(水火不相射)라 하여 그 상호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상호 관계에 따라 변화가 생기고, 변화로 인하여 만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⁶⁰⁾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늘만 높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땅도 하늘과 똑같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라고 할 때 어느 하나만으로는 만물이 생성 발전하지 못하며, 음과 양이 서로 조화하고 합덕이 잘 되어야 우주 만물이 제대로 성장 발전한다는 의미이다.

‘천지정위’란 천지가 제 위치를 정한다는 뜻이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건과 곤의 위치가 정하여진다. 낮은 것과 높은 것을 늘어 놓으니 귀하고 천한 것의 위치가 정해진다”(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⁶¹⁾는 말과 관련된다. ‘천지 정위’를 인간의 일에 적용한 것은 가인괘(家

58) 같은 책, “예시: 30.”, p. 319

59) 같은 책, “교법: 1-62.”, p. 232

60)곽신환, 주역의 이해(서울: 서광사, 1990), pp. 90~93

61) 『周易』, <繫辭傳>

人卦)이다. 천지는 건곤이고 건곤은 부모이니, 각기 안팎에 정위(正位)함으로써 가도(家道)가 바르게 되며, 그 결과 천하가 안정된다. 그래서 가인괘 <단사>에서 “남녀의 바른 것이 천지의 큰 뜻”(家人 女正位乎內 男正位乎外 男女正 天地之大義也.)이라고 하였다.

‘뇌풍상박’의 상박(相薄)은 불상패(不相悖) 또는 상여(相與), 상감(相感)으로 말해지기도 한다. 폭풍은 번개를 동반하고 번개는 폭풍을 수반해야 위엄이 크다. 뇌성 벽력이 없는 폭풍이나 마른 번개는 불길하게 여겨질 만큼 자연스럽지 못하다. 이처럼 양자는 서로 잘 어울려서 어긋나지 않는다.⁶²⁾ 천지가 항구한 까닭은 천과 지가 서로 감응하기 때문이다. 인간사에 비추어 보면 부부의 도로 나타난다.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이다. 남녀, 즉 음양이 서로 감응하고 덕으로 화합할 때 그 부부 관계는 원만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밀 수 있다는 것이다. 익괘에서는 “하늘은 베풀고 땅은 낳으니 그 유익함이 끝이 없다”(天施地生 其益无方)고 하고, 유익한 까닭은 “때와 함께 나아가기”(凡益之道 與時偕行) 때문이라고 한다.

‘수화불상사’의 불상사(不相射)는 상체(相逮)로도 표현되며 이는 상제(相濟)의 뜻을 지닌다.⁶³⁾ 그러나 동시에 상대적(相待的) 존재이기도 하다.

‘산택통기’는 산의 우로(雨露)는 물이 되어 산 아래 연못을 채우고, 연못의 물은 수증기가 되어 다시 비와 이슬의 상태로 산에 내려 온갖 초목을 키운다⁶⁴⁾는 말을 의미한다. 천지가 감응하여 만물이 화생하고, 지도자가 백성을 감화시켜 천하가 평화를 누린다는 뜻이다. <함괘 상사(象辭)>에 “그 감응하는 것을 보아서 천지 만물의 성질을 알 수 있다”(觀其所感 而天地萬物之情 可見矣)고 하였다. <단사(象辭)>에서는 “천지가 감응하면 만물이 화생하고, 성인이 인심을 감화하면 천하가 화평하다”(天地感而萬物化生 聖人感人心而天下和平)고 했다.

62) 『周易』, <說卦傳>

63) 山下靜雄, 周易十翼論の成立と展開, p. 137. 射는 厭의 뜻이고, 逮는 及의 뜻이다. 相逮는 적극적 표현이고 不相射는 소극적 표현이다. 이 말들은 <설괘전> 참조.

64) 『易』에서 山(艮)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說卦傳>에서 “終萬物始萬物者 莫盛乎艮”이라 했고, 『중용』 26장에서는 “今夫山一卷石之多及其廣大 草木生之禽獸居之寶藏興焉”이라 했으며, <艮卦>에서는 時中을 말하고 있다.

결국 증산의 천지가 다같이 화합하여 성공하고 만물이 그 이치대로 조화롭게 합덕하면 큰 열매를 얻게 되고, 그 수명이 길어 창성하게 된다는 말과 그 이치가 같다 하겠다.

“상제께서 어느 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 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 「건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 주셨도다.” 65)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5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 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아뢰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쭙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리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66)

이 글은 천지의 도수는 모두가 일음일양(一陰一陽)으로 구성되어 유행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다 우주 만물의 본성 속에 들어 있으며, 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증산은 음이 양을 누르거나 양이 음을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상태에서의 교감은 진정한 감응을 일으키지 않아서 참혹한 결과를 초래시킨다 말하고 있다. 음이 양의 주재력에 도전하거나 양이 교태(驕泰)하여 수용의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거나 충분한 인운(綱縉)이 되지 않으면, 우주 만물은 불흥(不興)하고 불통(不通)하고 불녕(不寧)의 상태

65)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2-16.”, 앞의 책, pp. 120~121

66) 같은 책, “공사: 2-17.”, p. 121

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래서 증산은 천지공사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음정양(正陰正陽)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건곤, 음양이 각자 지니는 바른 덕이요, 양이 음을 받드는 태도와 교감의 운동이 정대(正大)해야 된다는 것이다.

천지의 큰 덕은 생명의 창달이며, 낳고 또 낳아 끊이지 않고 생성 소멸하며, 하늘과 땅의 교감에서 만물의 변화 생성이 일어나며, 만물이 그것에 의하여 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교감에는 반드시 그 움직임이 바르고 큼에 있다는 것이다. 천도의 음양은 인도의 인(仁)이며, 일음일양의 도(道)도 따지고 보면 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상과 같이 대순 사상의 주류는 음양합덕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 보았지만, 음양이 그 덕을 합하면 강유가 생기며, 천리의 발현과 유행의 실제로 생기는 사계절의 운행과 만물의 성장도 원활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땅을 본받고, 땅이 하늘을 본받고, 하늘이 도를 본받고,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면 선천세계의 부조화와 불균형으로 발생된 분열과 혼란, 대립과 갈등, 불안과 저항 등도 사라지고, 인간세계는 질서와 안정, 설득과 이해, 관용과 토론, 승복과 합의 등으로 이루어져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시대의 선경사회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대순 사상이다.

동양의 사상이나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천지의 뜻이라 함은 음양의 상서로운 조화를 말하며 이는 곧 음양합덕을 통한 조화의 경지에 인간의 구원이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인위로 자연을 훼손하지 말며, 고의로 생명을 해치지 말며, 이득으로 명예를 손상하지 말라. 자연의 성품을 삼가 지켜서 잃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참됨에 돌아가는 것이라” 고 한 장자의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매사에 지극한 마음을 가져 하늘의 도를 따라 행동하고 하느님을 지극히 모시면 자연스러운 음양합덕의 조화 속에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해원상생⁶⁷⁾

「해원상생」은 대순진리에 있어서 음양합덕 신인조화 도통진경과 더불어 4대 종지 중 하나일뿐만 아니라 갈등과 반목, 정복과 약탈, 전쟁과 파멸의 상극(相剋)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인류 구원의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에 대해 비교적 깊이있는 성찰의 효과를 거둔 종교로 평가받는 불교는 연기연생(緣起緣生)의 원리를 제시하면서 그 고통이 인간의 집착(執着)과 갈애(渴愛)에서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사막에서 출발한 종교인 기독교는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를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명을 어기고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原罪)를 지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이 원죄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들에 비해 해원사상은 추상적 원죄나 연기연생론과 달리 개인, 사회 구성원, 인류 전체가 각자의 내면에 도사린 원통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로이트 이후 1세기를 맞은 현대 정신분석학의 결론과도 일치하고 있어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은둔자적(隱遁者的)인 자기 성찰의 소극적 입장이나 맹목적 자기 희생의 사랑만을 강조하지 않고 상대방도 살고 자기 자신도 더불어 살게 되는 상생(相生)의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해원상생에 대해 대순진리의 「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공사 1장 3절)

67) 해원상생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해원상생,”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또한 증산은 우주가 형성되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극의 창조 원리가 작용함으로써 원한과 갈등이 쌓여 왔음을 적시하고, “선천에는 천지에서 상극의 진리로 인간과 만물을 길러내므로 인간의 모든 일이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있다” 고 밝힌 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풀어 놓아 각기 인간의 자유행동에 맡기어 먼저 난법시대를 열어 놓는다” 고 첨언하였다.

그런 뒤, 상극의 원리에 지배되어 인류 종말의 위기에까지 빠진 인간을 비롯 모든 삼라만상의 원한을 풀어 생명을 구원하여 “이제 상생의 도로써 천지를 개혁하여 새 세상을 펼리라” 고 강조한다. 이 말씀 그대로 후천개혁의 선경(仙境) 즉 지상천국을 이룰 원리가 이 해원상생에 담겨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해원(解冤)」에 있어서 ‘원(冤)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 설정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가장 단순한 자의적(字意的) 의미를 살펴 보면 ‘원통함, 억울함, 원한, 원수’ 등의 의미가 있고, 원굴(冤屈: 원통한 죄와 누명을 씌) 원계(冤繫: 죄없이 잡혀 갇힘) 원귀(冤鬼: 무고한 죄로 죽은 사람의 망령) 원루(冤淚: 원통하여 흘리는 눈물) 원사(冤死: 억울하게 죽음) 원원상보(冤冤相報: 서로 원한을 보복함) 원혼(冤魂: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혼령)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원의 종류로는 (1) 민족의 원과 개인의 원, 그리고 인류의 원 (2) 조상으로부터 물려 내려져온 원과 자기 당대의 원 (3) 외형적 원과 내면적 원 등이 있을 것이고, 원의 작용 역시 부정적 측면과 더불어 “원풀이를 위한 적극적 노력” 등 긍정적 작용 역시 없지 않음도 알 수 있다.

해원에 있어서 「해(解)」의 자의적 의미를 살펴봐도 ‘조깅, 풀림, 깨우쳐 줌, 벗어남’ 등의 의미가 있고, 해갈(解渴: 목마름을 풀어버림) 해건(解巾: 머리 수건을 벗어버림) 해결(解決: 얽힌 일을 풀어서 처리함) 해금(解禁: 금하던 일을 풀음) 해독(解毒: 독기를 풀어 없애버림) 해득(解得: 깨우쳐 앎) 해민(解憊: 근심을 풀어버림) 등에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이 해(해)는 타의에 의한 해, 자의에 의한 해, 내면적 해와 외형적 해, 개인적 해와 사회적 민족적 인류적 ‘해’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국립중앙도서관 고서목록 고(古)1496호로 분류되어 있는 460년 전의 인물 남사고(南師古: 조선왕조 명종 때의 예언자)가 지었다는 이른바 ‘한민족의 예언서’ 「격암유록(格庵遺錄)」에는 해원과 관련하여 이런 글귀가 보인다.

白髮君王白石理
非道覺而無知死
道知人解冤世

(백발의 군왕이니 돌이 흰 이치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죽으니,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맺힌 한을 푸는 세상이로다.)

해원이 곧 민족 구원과 인류 구원의 진리임을 이 글에서도 밝힌 셈이다.

대순 사상에서 말하는 해원은 다양한 갈등과 욕구불만을 지닌 인간의 삶에 대한 명쾌한 해결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기적인 삶에 대한 순화와 적응 방법을 말하고 있으며, 척을 짓지 않고 해원을 통해 서로를 이롭게 하는 광의의 이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안심과 안신, 그리고 훈회(訓誨)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상을 가꿔갈 수 있다는 것을 『대순진리회요람』에서는 말하고 있다.⁶⁸⁾ 대순 사상 실행 규범은 한 마디로 남을 해코지 하지 말고 남을 잘 되게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욕구를 억제하고 척을 짓지 말아야 하며, 쌓인 원은 풀어야 한다.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⁶⁹⁾

증산은 선천에서의 착란이 명부신명들의 포한(抱恨)에 따른 착란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그 원한을 풀지 않고는 후천의 상생 세계가 건설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증산이 이같은 천지공사에서 우주를 조화하게 된 것은 까닭

68)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교무부, 1969), p. 15

6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공사: 1-3.”, 『전경』(서울: 대순진리회출판부, 1989), p.

이 있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세 세계에서 하늘과 땅의 운도수(運度數)에 부정과 불응이 생겨서 우주 안에 있는 신명들의 세계와 사람들의 세계에서 제각기 공격해대는 상극(相克)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로가 원한을 품게 되어 진멸하는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그 원한이 쌓이고 쌓여 신명이나 약자는 그보다 강한 신명이나 강자에게 먹히게 되었으며,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천기가 고르지 않게 되어 비가 올 때에 제대로 비가 오지 않고, 햇빛이 나와 하는데도 햇빛이 제대로 비치지 않아서 재앙이 생기고, 재앙이 생기니, 질병이 따라서 일어나 모든 사물이 병들고 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산이 세상을 구하고 병에서 사람들을 구하는 덕을 베풀게 되었으니 이것이 천지공사이다.

천지공사 중 해원공사는 크게 신명계 해원, 인간계 해원, 지계(地界) 해원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명부신명의 공사 처결은 만고의 원을 품고 명부에 있는 신명들의 원을 풀어주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 원이 단주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그 단주의 원을 풀어주므로써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는 것이다.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순(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창오(蒼梧)의 땅에서 붕(崩)케 하고 두 왕비를 소상강(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 70)

증산은 원을 풀어주는 이같은 공사를 해원공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그리고 그 해원의 대상자들은 억울하게 원한을 품은 채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하여금 품은 원한을 풀도록 처음 품은 소원을 충족하는 공사를 보게 된다.

이를 두고 증산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하고 말하고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고는 그것을 불살랐다.⁷¹⁾ 이 공사에는 때로는 주육과 단술이 쓰였고 상제

70) 같은 책, “공사: 3-4.”, p. 130

는 여러 종도들과 함께 그것을 먹기도 하였다.

해원의 다양한 양태를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해원 상생의 여러 공사를 예로 들어보았다. 이같은 해원이 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서로 관련되는 것일까? 『전경』의 기록에 의하면 백암리에서 종도 김경학이 김영학을 종도로 추천하였는데, 증산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레만에 경학을 꾸중하신 후에 종도의 허가를 내린 일이 있다. 이 때 꾸중의 원인은 “너를 꾸짖는 것은 네 몸에 있는 두 척신을 물리쳐 내려는 것이니라” 하는 증산의 말로 이해된다.

그 척 중 하나는 아전과의 말다툼에서 무례한 말에 분격해서 그에게 화로를 던져 머리에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로 신음하다가 죽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척은 의병대장으로 하여금 약탈한 의병을 찾아서 총살하게 한 것이다. 이 두 일을 예로 든 것을 보면 척이라 함은 상대에게 재앙이나 고로움을 끼치게 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척이 상대에게는 하나의 원한이 되는 것이다.

척은 저지르는 측에서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 척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서 원한의 근원이 된다. 따라서 척은 먼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참회하여야 상대방이 그로 인해서 품은 원한이 풀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이 김영학에게 꾸증으로 그 지은 척을 먼저 깨닫게 한 것은 이같은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척을 품은 측의 원을 먼저 풀어주고, 해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은 척과 원을 품은 측 사이에 이해가 이루어지고 정적인 관계가 회복된다.

해원이란 원이 된 원인을 없애고 소원하던 바를 충족시키는 일을 통해서 근원을 해소함을 말한다. 영원한 척의 윤회를 어는 순간에 끊고 분풀이 대신 참회란 의례를 통해 척을 없애는 것에 해원의 참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상극되었던 척의 장벽은 무너지고 상생(相生)의 화평 상태가 새롭게 열리는 것이다.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을 명부의 착란에 있다고 보고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면 이를 통해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된다. 이같은 상생원리에 의해서 인존 역사는 처결되었고 후천세계의 기틀이 마련

되었다.

상생의 원리는 현대 문명 사상에도 적용된다. 즉 세계의 모든 인종과 족속들이 제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전승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하는 색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으므로 후천세계에서는 각각의 문명이 척을 짓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상생의 도는 묶은 척을 풀고 새로운 세상을 여는 의술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절대 진리라 할 것이다.

해원과 상생은 대순진리를 나타내는 대명사격으로 대순진리의 교리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해원상생은 원을 풀고 상생한다는 뜻으로 대순 사상에서 중요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해원이 필요한 것은 선천의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연유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상극에 지배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원한은 또다른 원한을 낳고, 그 원한이 또 원한을 낳음으로써 인간과 사물은 모두 원한에 얽혀 있었다. 결국 상도(常道)는 무너지고 무도(無道)의 지경에 다다라 진멸지경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극에 달한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쌓인 원을 푸는 것이고, 그것은 증산이 말한 해원상생의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선천 세계에서 쌓인 원한은 인간 세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해원상생의 적용범위는 선천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해원을 위한 방법 또한 수없이 많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의 한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

“상제께서 어느 날 종도들이 「중천신은 후사를 못둔 신명이니라. 그러므로 중천신은 의탁할 곳을 두지 못하여 황천신으로부터 물과 밥을 얻어먹고 왔기에 원한을 품고 있었느니라. 이제 그 신이 나에게 하소연하므로 이로부터는 중천신에게 복을 주어 원한을 없게 하려 하노라」는 말씀을 상제로부터 들었도다.” 72)

“상제께서 가라사대 「만고 역신을 해원하여 모두 성수(星宿)로 붙여 보내리라. 만물이 다 시비가 있되 오직 성수는 시비가 없음이라. 원래 역신은 포부를 이루지 못한 자이므로 원한이 천지에 가득하였거늘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 일을 밋게 보아 흉악의 머리를 삼아 육설로 역적놈이라 명칭을 붙였나니 모든 역신은 이것을 크게 싫어하므로 만물 중에 시

72) 같은 책, “공사: 1-29.”, p. 109

비가 없는 성수로 보낼 수밖에 없나니라. 하늘도 노천(老天)과 명천(明天)의 시비가 있으며 땅도 후박의 시비가 있고 날도 수한의 시비가 있으며 바람도 순역의 시비가 있고 때도 한서의 시비가 있으나 오직 성수는 시비와 상극이 없나니라」 하셨도다.” 73)

시비와 상극이 없는 성수의 개념은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해원상생의 원리는 후천 선경의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상제께서 다양한 공사를 통해 이를 실천해왔다. 선천 세계를 광구할 수 있는 방법은 상극의 지배로 인해 천·지·인 삼계가 상통하지 못하는 윤회의 사슬을 끊고 근원적인 원인인 원한을 풀어내는 것이며, 상제는 해원을 통해 막혔던 것을 뚫고 상생을 통해 새로운 창조의 신세계를 열 수 있도록 하였다. 해원과 상생의 관계는 이처럼 더이상 원한의 쌓임이 있을 수 없는 후천 선경을 이룩하기 위한 큰 목적하에 한 방향으로 어우러지고 있다.

앞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증산은 일찌기 후천개벽을 외치며 민중의 해원상생(解冤相生·한을 풀어줌으로써 서로가 함께 사는 것)을 위한 천지공사(天地公事)에 주력했다. 천지공사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돌리고 척을 짓지 말 것을 강조했으며, 해원상생을 통한 인류 평화를 제창했다. 다시 말하면 선천세계의 막힌 도수를 풀고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3. 신인조화⁷⁴⁾와 도통의 세계

‘신인조화’는 대순진리의 음양합덕 해원상생과 함께 도통의 세계(진경세계)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자 4대 종지 중의 하나가 된다. 이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은 선천세계부터 쌓인 원한의 축적이 현실 세계에 터져나오기 때문에 일어난다. 상극의 세계에서는 신분의 격차, 성차별, 전쟁, 자연재해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이들의 원한이

73) 같은 책, “교법: 3-6.”, p. 246

74) 신인조화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참조

천지에 넘치는 세상을 보다못해 증산은 범신으로 나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이라는 인류구원사상을 제시했고, 천지공사를 통해 이를 뜯어 고치고자 하였다.

인류문화의 이상은 다양한 가운데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쌓인 원한은 이같은 조화된 세상을 이루기 어렵게 하고 있다. 변화를 만들고 조화를 이루는 것은 새로운 역사의 질서를 만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천선경의 세계이다. 분열과 갈등이 선천세계의 상징이라면 상극으로 맺어진 하늘과 땅, 동과 서, 인간과 인간, 민족과 민족의 조화와 화해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하는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신(神)을,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절대적 존재로 하늘 높이 모셔 놓고, 거기에 인간은 철저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하관계(上下關係)의 존재로 설정해 놓았다. 불교에서의 신(神)은, 이와 또 다르다.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 위에 불교는 존재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신성(神性)이 있다. 이 신성이란 우리의 내부에 있는 에너지이지만, 우리의 삶을 뒤바꿔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자아에 대한 느낌은 모든 존재가 느끼는 느낌이다. 그것이 존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다. 신성은 그 존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따라서 이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가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대순 사상을 세운 증산은 일찍이 그를 따르는 종도를 향해서 “하나의 풀 잎도 신(神)이 떠나면 말라죽고 흙 바른 벽도 신이 떠나면 무너지느니라”고 말한 바가 있었다. 이는 천지 만물의 조화와 기적이 우리 마음과 신성(神性)에서 나오는 것임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인조화를 통한 구원의 개념은 ‘총체적 혼미의 시대’를 맞고 있는 우리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마음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며 존재의 삶을 유지하는 힘이다. 신성은 그 존재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다. 따라서 이 신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나아가 우리 사회는 엄청난 변화의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앞에서 필자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사상을 중심으로 ‘구원진리로서의 대순사상’에 대해 논한 바 있다. 신인조화 사상 역시 하늘과 사람, 인간과 자연의 상보 조화(相補調和), 보이지 않는 것(陰)과 보이는 것(陽), 통일(陽)과 분화(陰), 전체(陽)와 개체(陰), 인(仁·陽)과 의(義·陰)의 상보 조화 등 조화와 통합을 의미하는 구원의 진리이다. 이러한 신인조화 사상은 誠·敬·信·忠·孝·禮의 사상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이것은 현실적으로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익우선(公益優先), 희생·봉사정신에 의하여 구체화된다.

대순 사상에서의 신과 인간은 산술적으로나 질적으로 동등함을 전제로 한다.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고 한다. 또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즉 신인조화 사상은 전체와 개체를 같이 존중한다. 그리고 양자의 조화와 합일의 상태를 이상으로 한다. 대순 사상은 신성(神性, Gottheit)의 본질과 작용에 관해서 알려 주며, 인간의 본질에 관해서도 뭔가를 알려 준다. 대순 사상은 우주와 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인간이 가장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또 맺어야만 하는 실재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이며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간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등에 대한 질문에 해답을 알려 준다.

인간과 신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에 의해 오래 전부터, 또 모든 종교에서 있어왔다. 호오머(Homer, 9 B. C.)는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인 신(神)들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죽어야 할 하루살이’ 같은 존재이며, 어떤 ‘그림자의 꿈’에 불과하다고 하였다.⁷⁵⁾ 인간을 하늘에서 살고 있는 자(신)들과 비교하여 보면 인간은 호모(Homo, 지상에 매인 자라는 뜻)이며, 운명의 여신(女神)의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홀더린(F. Hölderlin, 1770~1843)이 그의 시(詩)에서 “물이 절벽으로부터 절벽으로 흘러 떨어지는 것”⁷⁶⁾과 같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지상에 발 붙이고 있는 자이고, 저네들이 갖고 있는 무운 명성에 비할 때, 인간은 예속적 상태에서 “이

75) 『聖經』 <시편>, 62-10. 116-11

76) 金容善·成晉基·李容煥 편, 人間과 價値(서울: 전남대 출판부, 1994), pp. 74 ~ 75. 재인용

암초로부터 저 암초로 내던져지는 바닷물과도 같다”는 것이다. 인간은 신의 우월함을 보고 자기 자신의 약함을 깨달으며, 신들의 신비에 찬 은닉을 보고 자기 의식의 유한함을 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기 스스로를 치켜올려 오만불손하게 신들과 같이 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⁷⁷⁾ 그러면서 또 인간은 생각한다. 물론 인간은 신들 앞에서 머리를 수그리어야 하는 존재다. 그러나 인간은 신들과는 친척이며, 신들에 의해서 선택받은 존재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말은 그리이스의 서정시인인 핀다르(Pindar, 522~443. B. C.)가 읊은 시 속에서 “신들과 인간은 각기 다른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의 사타구니에서 태어나서 숨을 쉰다”고 한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성경』 <창세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生氣)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⁷⁸⁾ 라고 하였으며, 증산은 『전경』에서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들어야 하느니라”⁷⁹⁾ 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인간은 신에 의하여 창조되었으며, 또 인간은 신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종류’이며, ‘가능한 불멸성(不滅性)’의 존재임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신에게서 보다 고상하고, 보다 강한 점을 우러러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신의 피조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또 증산은 선천시대의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간 구원 사상을 다음과 말하고 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 하면, 허사가 될 것이오.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主宰)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

77) 李完裁·許在允·申龜鉉·林洪彬 共著, 人間과 倫理(서울: 영남대 출판부, 1997), P. 21

78) 『聖經』 <창세기: 2-7.>

79)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법: 1-62.”, 앞의 책, p. 232

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리라.” 80)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려 하노라. …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 공정(公庭)에 참여하라.” 81)

증산은 당시의 민중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조리와 불평등을 보고 이상적인 인류 사회, 즉 후천 선경을 건설하기 위해 천지공사를 행하는 가운데서 이같은 말을 했다. 다시 말하면 증산이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조화로써 천지를 개벽하고 후천 선경을 열어 고해에 빠진 중생을 널리 건지고, 천한 사람을 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다.

증산은 『전경』에서 “한 사람이 원한을 품어도 천지 기운이 막힌다”, 82) “속담에 「무척 잘 산다」 이르나니 이는 척이 없어야 잘 된다는 말이다. 남에게 억울한 원한을 짓지 말라. 이것이 척이 되어 보복하나니라. 또 남을 미워하지 말라. 사람은 몰라도 신명은 먼저 알고 척이 되어 갚나니라” 83) 라고 말하였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들에 둘러싸여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때문에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에게 원한을 사서 척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대순 사상은 역사의 발전 과정을 천존시대, 지존시대, 인존시대로 전개된다고 하고 있는데, 증산은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을 만들리라” 라고 하였다. 또 인존시대는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이 역사를 주도하고 모든 인간이 존중받는 시대이며, 선천시대에는 인간이 존중받지 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를 받았으나, 후천시대에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는 시대라 하였다. 증산의 “천지(天地)가 일월(日月)이 없으면 빈 껍데기고, 일월(日月)이 사람을 알지 못하면 빈 그림자이니라” (天地無日月空殼 日月無知人虛影)⁸⁴⁾는 말이나, “하여 사람이 없으면 천지도 없다. 그러므로 천지가 사람을 낳고 사람을 쓰니라” (然無人無天

80) 같은 책, “권지: 1-21.”, p. 271

81) 같은 책, “예시: 17.”, pp. 314~315

82) 같은 책, “공사: 3-29.”, p. 144

83) 같은 책, “교법: 2-44.”, p. 242

84) 같은 책, “예시: 21.”, p. 316

地 故天地生人 用人)⁸⁵⁾ 라고 한 말 등은 하나같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있다.

증산은 「음양경」(陰陽經)에서 말하기를,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⁸⁶⁾ 고 하였다. 이 말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은 모두 음양의 성질을 부여받으며, 음과 양 즉 신과 인간이 서로 조화롭게 합해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증산은 “이제 말세를 당하여 무극대운(無極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척을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천지공정(天地公庭)에 참여하라”⁸⁷⁾ 고 하여 인간과 신의 관계를 정립하였다. 증산은 『전경』 <제생편>에서 “사람은 양이 되고 신은 음이 되니 음양이 서로 화합한 다음이라야 변화의 길이 있다”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有變化之道也)라고 했다. 이 말은 후천 선경을 이루려면 신과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만 변화의 길이 열리고 또한 가능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하겠다.

이로써 대순 사상의 특징이 후천 선경의 건설에 있다는 것이 좀더 명확해진다. 후천 선경과 신인조화는 대순 사상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과도 그대로 일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순 사상의 이상과 목적을 나타낸 도주의 종지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음양합덕·신인조화·해원상생·도통진경 등 네 가지인데, 특히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우주가 생겨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생성 발전 과정을 거쳐 진멸에 이르기까지의 원인이 신인(神人)의 부조화·불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후천 선경은 이 신인의 부조화와 불균형을 극복한 신과 인간의 상호

85) 같은 책, “교법: 3-47.”, p. 260

86) 같은 책, “교운: 2-42.”, pp. 206~207

87) 같은 책, “예시: 17.”, p. 315

조화로 이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신인조화 사상은 신과 인간이 동등(同等)함을 말하고 있다. 『전경』 <음양경>에 “하늘은 안정되고 땅은 순종하며, 하늘은 양이고 땅은 음이니, 해가 가고 달이 가고, 해는 양이고 달은 음이다. 신령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신은 음이고 사람은 양이다”⁸⁸⁾ 라고 한 것이 그 예이다. 같은 <음양경>에서 “신은 사람이 없는 다음에는 의탁할 바가 없고, 사람은 신 앞에서 없으면 이끌어 의지할 바가 없다” 고 한 말이나,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고 한 말 등은 모두가 하나같이 신과 인간의 동등성과 동질성(同質性)을 말한다 하겠다.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 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⁸⁹⁾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증산의 말 또한 신과 인간의 동질성을 말하며, 신을 인간처럼 인간을 신처럼 생각하라는 뜻이라 하겠다.

대순 사상에 있어서의 「신인조화」는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관념이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사상이다. 증산 자신이 구천상제로서 신이었지만 재계에 빠진 인류와 신명을 구제하고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육신(成肉身)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이 말은 바로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며 천(天)도 되고 신(神)도 될 수 있음을 말한다 하겠다.

그러나 증산은 신을 음, 인간을 양이라 하고, 이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조화와 합덕을 갖지 못하면 인간계는 물론 신명계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만이 있게 되어 후천 선경을 이를 수 없다고 하였다. 앞서 <음양경>에서 “신령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신은 음이요 사람은 양이다. … 천지의 일

88) “乾定坤順乾陽坤陰日行月行日陽月陰有神有人神陰人陽”, 대순진리회교무부 편, “교운: 2-42.”, 앞의 책, p. 206

89) 같은 책, “교법: 1-62.”, p. 232

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有神有人神陰人陽 …天地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成造化 …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成神明族人人族 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人事成而神事成.)⁹⁰⁾라고 한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 사상은 곧 자연의 순리를 따라 진리를 추구하며 그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고, 그 중에서도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그리고 신인조화를 통한 인간 구원을 제1의 위치에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대순 사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사상은 바로 순환 사상이다. 이것은 음양합덕 사상이며, 신인조화 사상이며, 천지인의 인격적 합일 사상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천인합일(天人合一), 지인합일(地人合一), 인인합일(人人合一)이 되는, 즉 미개한 인간을 하늘과 같은 신성한 경지와 땅과 같은 풍성한 성격으로 착하고 자애로운 인간으로 개조하여 지상 낙원을 만든다는 후천 개혁 사상이 된다.⁹¹⁾

『전경』에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샷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니라” 라고 한 말 등은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이 또 신도 되어, 신과 인간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덕으로 통해야만 천도를 이루고 또 지도를 이룰 수 있다는 의미라 하겠다. 이것은 마치 재겍에 쌓인 신명과 민중을 건지기 위해 구천상제인 증산이 인

90) 같은 책, “교운: 2-41.”, p. 207.: 楊茂木, 앞의 논문, pp. 177~178

91)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앞의 책, pp. 217~218

간으로 태어나 천지공사를 마치고 다시 신의 세계로 화천하였다는 사실과 그 맥을 같이 한다 하겠다. 신인조화 사상은 이처럼 순환과 윤회, 만민일체의 인류 구원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증산은 선천시대의 파괴된 천지 도수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천지공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인간 구원 사상을 다음과 말하고 있다.

“아무리 큰 일이라도 도수에 맞지 아니 하면, 허사가 될 것이오. 아무리 경미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도수에 맞으면 마침내 크게 이루게 되느니라.”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리라.”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 민족은 대순 사상인 신인조화 사상을 통해 통합과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고, 혼미와 혼돈은 그 큰 틀 속에서 만법, 만물이 조화를 이루는 근원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같이 마음 속의 신성을 깨우침으로써 근원의 자리를 찾아감으로써 드넓은 신인조화의 길로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구원사상으로서의 신인조화의 요체이기도 하다.

IV. 문학작품에 나타난 도통진경

그 동안 여러 종교가 역설하고 있는 도의 개념과 대순에서 말하는 구원세계 즉 도통진경으로 나아가는 길에 대해 설명했다. 종교가 말하고 있는 도가 인간의 세계를 떠나 있지는 않다고 할 때 도의 세계는 곧 바른 인간의 길이며 인간의 길이 곧 도의 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도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공자의 예를 들었지만 공자의 일면 중에 임어당은 재미있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노벨상 수상작가인 그의 ‘망각된 일면’이란 글은 “공자는 성인으로서, 그리고 엄격한 도리의 스승으로 알려져 왔다. 이같은 관념은 일반적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부정확하고, 또한 인간으로서의 공자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시작하고 있다. 먹고 입고

사는 데 공자처럼 까다롭다는 것을 알았다면 현대여성들은 아마 누구도 공자와 결혼하려 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의 까다로운 식성을 니열한다.

공자는 먹는 밥을 짓는 쌀은 희면 흰수록 좋아했다. 고기도 가늘게 자를수록 좋아했다. 공자는 음식의 풍미가 달라지면 먹지 않았다. 또 방금 요리해 낸 음식이 아니고는 먹지 않았다. 또한 그 음식에 맞는 장을 치질 않고 다른 장을 쳐도 먹지 않았다. 집에서 빚지 않은 술은 마시지 않았고, 고기도 푸줏간에서 사거나 저자에서 군 고기는 입에 대질 않았다. 공자는 또 검은 양의 가죽옷을 입을 때에는 검은 두루마기를, 아기 사슴의 가죽옷을 입을 때에는 갈색 두루마기를 콤비로 맞추어 입는다 했다.

“채 열아홉 살도 못 되어 시집온 공자의 아내가 이같은 까다로운 남편의 식성과 버릇을 참아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별반 이상할 것이 없다”고 임어당은 쓰고 있다.

유교의 가치 체계를 확립한 공자도 인간인 점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도의 세계를 얘기하고 천국과 지옥, 진경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특히 문학적 상상력이 뛰어나고 사회적 소명의식이 높은 문인의 경우 도의 세계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치밀하고 구체적인 면이 있다. 문학 속에 나타난 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우선 중세기 기독교 세계관을 근거로 지옥, 연옥, 천당을 순례하면서 인간의 참 모습과 신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문학의 고전 『신곡』(神曲: La Divina Commedia)⁹²⁾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자.

1307년에 작성하기 시작하여 13년 만에 완성된 것으로 전해지는 단테(Dante: 1265~1321)의 『신곡』은 ‘지옥편’(Inferno), ‘연옥편’(Purgatorio) 및 ‘천당편’(Paradiso)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편은 33곡의 노래(canto)를 포함하는데 ‘지옥편’에만 서장 한 곡이 더 첨가되어 전부 100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작품의 질에 있어서나 양에 있어서 서구문학의 정상으로 간주되는 이 작품은 정교하게 설계된 웅장하고 완벽한 건축물과도 같은 인상을 주는 작

92) Alighieri Dante, La Divina Commedia: 김의경 옮김/Alighieri Dante, 神曲 (서울: 혜원출판사, 1988), pp. 632~635

품이다.

『신곡』은 한 마디로 사후(死後) 세계의 양상을 상징적으로 묘사해놓은 것이다. 단테가 열과 성을 다하여 강조하는 것은 현세의 생활 태도가 곧 사후세계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현세에 사는 동안 바르고 깨끗한 도덕적 종교적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진리를 일깨워 주기 위해 단테는 이 책을 쓴 것으로 보인다. 『신곡』은 순수하고 완전한 신적인 세계인 천국을 향해 가는 도정을 그리고 있다. 마치 음과 양의 대립이 극심화된 세상의 타락과 분열을 벗어나 지고지선의 단계로 나아가는 도정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시인 단테는 인생여로의 절반 고개인 35세 때에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암흑의 숲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여기서 갑자기 만난 계도니 표범(정욕의 상징)과 사자(교만의 상징)와 암이리(탐욕의 상징) 때문에 이 숲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로마의 시성(詩聖) 베르길리우스가 나타나 도덕을 통한 길이 아닌 지옥을 통하여 죄를 인식하는 길로 단테를 인도하게 된다. 각 편마다 33곡으로 이루어진 지옥, 연옥, 천국의 묘사는 이를 순례한 단테의 여행기와 관련을 맺는다. 『신곡』 <지옥편>의 도입부는 지옥문 앞에 쓰여있는 어두운 색깔의 시가 눈길을 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가라.
영원의 가책을 만나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가라.
파멸의 사람들 속에 끼이고자 하는 자 있거든 나를 거쳐가라.
정의는 지존하신 주를 움직이고,
위력과 신비스런 지혜와 사랑의
근본이신 신이 나를 만들었노라.

나보다 먼저 창조된 것 달리 없나니
오직 영원만 있을 뿐. 나는 무궁으로 이어지는 것.
나를 거쳐가려는 자. 모든 소망을 버리라.

지옥문을 들어서면 비겁하게 살았던 자들의 영혼이 맨 먼저 눈에 띈다. 탄식과 울음소리와 고향소리가 별도 없는 하늘에 울려 퍼지고 있다. 인도자 베르길리우스의 충고에 따라 단테는 그들을 다만 보기만 하고 지나간다. 이

어 지옥은 1옥, 2옥, 3옥으로 이어진다. 색욕의 죄인들은 빛도 물도 없는 황량한 땅에서 광풍에 휘몰려 떠돌고 있고, 탐욕가·탐식자들은 큰 우박덩이와 더러운 물과 눈이 암흑의 대기 속에서 즐기차게 쏟아지고 있는데 가운데 냄새나는 대지 위에서 괴물에게 살을 찢기며 신음하고 있다. 지옥의 상층부에 해당되는 제5옥까지는 인간 본성에 속하는 감정의 타성과 인간 의지의 박약 때문에 생기는 방종의 죄악들이 벌을 받는 곳이었다.

6옥 이후는 인간의 의지가 지은 죄를 벌하는 곳이다.

분명히 이 눈으로 보았고 또 지금도 눈앞에 떠오르지만
 목 없는 자가 하나
 불쌍한 일행 속에 끼어서 걸어왔다.

몸통이 잘려진 목의 머리털을 움켜잡고
 마치 등불처럼 들고 간다.
 그 목이 우리를 보고 “아아” 하고 탄식했다.

자기가 자기를, 자기를 위한 등불로 삼고 있다.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둘인 것이다.
 그것이 어찌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하나님만이 아신다.

단테가 묘사한 참혹한 지옥의 한 장면이다. 혀로 불화를 일으킨 자들은 목구멍에서부터 잘려진 혀를 들어올리고 있으며, 팔로 분쟁을 일으킨 자들은 어깨에서부터 비틀려 뜯어낸 팔을 들고 다닌다. 찢긴 상처는 아물기도 하지만 곧 악귀의 갈퀴에 의해 다시 찢긴다. 단테는 ‘지옥편’에서 자기의 스승뿐 아니라 조국의 지도자들, 또 종교적인 절대권을 가지고 있던 교황들까지도 그들의 범죄에 따라 가차없이 해당되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지옥편’은 당시 이탈리아 정치계에 대한 그의 강한 부정적 선입견과 더불어 타락한 인간성의 종말과 그들의 벌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어진 ‘연옥편’은 ‘지옥편’을 쓴 다음인 1308~13년간에 씌어졌다.

연옥은 사람의 영혼이 모든 죄악에서 깨끗함을 얻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준비의 단계이다. 원래 하늘의 수천사(首天使)가 신에게 불손한 마음을 품었다가 버림을 받아 북극에 떨어졌을 때 그가 떨어져 깊숙이 파헤쳐진 공동(空洞)이 지옥이 되었고, 연옥은 그 반대쪽 지구로 튀어나와 산더미가 된

곳이다. 이 섬에서는 정화(淨火)에 의한 고통을 받고 있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죄를 씻는 과정을 반복하는 곳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든 죄악에서 깨끗해진 영혼들은 비로소 천국의 도래를 기다리는 것이다.

연옥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죄를 씻어야만 한다. 그것은 교만, 질투, 분노, 태만, 탐욕, 탐식, 색욕을 의미하는 것이다. 연옥의 문이 좁은 것은 인간이 겸손을 터득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상징한다. 일체의 자아를 버리고 신에게만 의뢰하는 연옥의 겸손을 배우는 길이 결코 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이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부터는 앞으로 나가는 길뿐이며 뒤로 돌아갈 길은 없다.

마침내 낙원에 도착한 단테는 여기서 보았던 황홀한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불꽃이 앞으로 나가니
뒤에 남은 채색된 공기는
마치 화필로 그은 듯이 꼬리를 그었다.

그 위쪽의 대기는 빛나는 태양이 만들어내는
무지개의 활과 멜로스의 딸이 두르는
떠인 일곱 가닥의 색깔로 나뉘어졌다.

천국의 하늘을 아름답게 묘사한 그는 이윽고 제 30곡에 이르러 순수한 사랑을 상징하는 숙녀 베아트리체의 등장을 노래한다.

일찍이 여명을 보았을 때
동녘 하늘은 온통 장미 빛으로 물들고
서녘 하늘은 맑게 개어

태어나는 해의 얼굴이
아침 안개의 너울로 가리워져
있음을 내 일찍이 보았거니와

지금 그 모양과 흡사하게 천사의
소능로부터 수레의 안팎으로
흩어지는 꽃구름 속에서

하얀 너울을 쓰고 감람 관을 쓴 여인이

눈앞에 나타났다. 녹색 망토 밑에는
불타는 듯한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이 낙원을 거쳐 레테의 강을 건너면 마침내 천당계를 오를 수 있게 된다. 천당은 지옥과 연옥을 거쳐 도달하는 신의 사랑과 빛의 최고 축복의 영역이다. 물론 <천당계>를 표현한 단테의 많은 시들은 그 표현된 시구가 탁월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마치 철학적, 신학적 문제들을 다룬 신학 논문처럼 읽혀질 수 있는 딱딱한 주제를 담고 있다. 이곳에는 단테 스스로가 표현해내는 자신의 운명론에 대한 개념이 담겨 있으며, 여행의 종착지인 지고천에 들어갈 때 베아트리체는 이 지고천이 빛과 이성,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단테에게 설명한다.

가장 큰 물체에서 우리는 순후한 빛이신 하늘에서 나왔으니
그것은 사랑이 가득찬 지성적인 빛이요
기쁨이 가득찬 진실하고 선한 사랑이며
일체의 감미로움을 초월하는 기쁨이로오.

(〈천국편〉 제30곡)

지고천은 바로 하늘이다. 그리고 비록 다른 의미에서 보면 하늘들 중에서도 우주의 움직임이 없는 중심이다. 지고천은 빛으로 가득찬 곳이다. 단테는 하느님의 모습을 뵈 수 있다는 허락을 받고서, 태양천과 그 외 다른 별들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원천이신 그분을 뵈는다. 그러나 그의 능력으로서는 그 모습을 전혀 형용할 수 없다. 하느님의 신성(神性)은 사랑의 원천이며 우주에 있는 모든 물리적인 것들의 원천이기도 하다.

‘지고천’이 빛으로 가득찬 곳이라는 개념은 문학적 상상력으로서 보편성을 띤다. 『신곡』이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창작된 것과는 달리 한국 문학계의 큰 수확으로 평가되고 있는 장편소설 『하늘에 걸린 얼굴』은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가 인류 구원의 사상임을 너무도 분명히 밝히고 있어, 대순 사상에 바탕을 둔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평가될 만하다. 제22회 한국문학상 수상작이며, 후광(後廣)문학상 1998년도 수상작 소설이기도 한 이 작품은 문단생활 38년에 이르는 중진작가 오인문의 대표작으로 평단에서

도 많은 호평을 받은 문제작이다.

최근 출판되어 독자들의 열렬한 반응을 얻고 있는 이 소설의 한 대목을 보자.

그는 너무 밝은 빛을 피해 손바닥으로 두 눈을 꼭 눌렀다.

“옛날 사람들이 한때 이렇게 생각했던 걸 너도 잘 알지 않느냐? 자기가 태어난 고장, 자기 조사의 발길이 미쳤던 그곳까지가 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했던 것 말이다. 그러다가 육지 밖엔 또 바다가, 있고, 바다 저쪽에 또 새로운 육지가 있다는 걸 알게되자 ...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에서 3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존재하고 있으며, 은하계 안에만도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십만 개나 된다. 그래도 내말의 뜻을 너는 모르겠느냐?”

... 중략 ...

“빛을 좀 가려주세요, 아버지. 너무 강해 눈이 멀 것만 같아요.”⁹³⁾

작가 오인문의 『하늘에 걸린 얼굴』은 천국의 세계를 무척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작가 자신이 기독교인이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작품 속에는 <현자들의 평원>이라는 천국을 암시하는 듯한 대목이 나온다. ‘인간이란 본디 지극히 높게, 멀리, 그리고 아주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존재였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그 인간들이 음식의 맛과 색욕과 지배욕과 손아귀 안에 움켜 쥐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높이, 멀리, 깊게 보는 능력은 필요 없게 되어 버렸으므로 그 기능이 퇴화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작품은 1984~1985년 <월간문학>지에 연재되었던 작품인데 최근에 단행본으로 엮어져 나와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복제양·돌리가 무사히 출산을 했다는 뉴스가 연일 신문을 장식하던 때여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하늘에 걸린 얼굴」은 이미 10여년 전에 인간복제(複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한편 이같은 일이 빚어낼 불행한 사태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그리고 있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은 인간의 손으로 조작된 생명체가 그 후손을 키워갈 수 있다는 것으로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작가는 이미 오래 전에 그 부작용을 예언하고 있었던 셈이다.

93) 吳仁文, 하늘에 걸린 얼굴(서울: 문학저널, 1998), pp. 214~215

소설인 만큼 정확한 예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제를 통한 인간의 구원과 영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이 현대 과학의 발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나와 똑같은 인간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에 다시 태어난다. 그를 통해 나는 영생을 얻을 수도 있다. 나의 죽음과 상관없이 똑같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생명 복제는 그것이 두 명, 세 명,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암시한다. 늙은 내가 죽어가는 한편에서 젊은 내가 성장하고 있고, 내 딸이 나와 똑같은 새생명을 임신할 수도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한 여인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임신하여 낳아 기를 수도 있다.

「하늘에 걸린 얼굴」은 생명 복제의 상업적 이용까지 가상한 충격적이고 경이적인 작품이다. 작가는 어느 부분에서 절취해 내었건 동일인의 체세포는 모두 똑같은 소인을 지닌 46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에 착안, 이 체세포에서 떼어낸 세포핵을 난핵을 제거한 인간의 난자에 결합시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난핵에는 유전인자를 지닌 23개의 염색체가 모여 있는데 난소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이 난핵을 떼어내고 거기에 복제할 대상 인물의 세포핵을 환치시키면 얼마든지 같은 유전자를 지닌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최첨단 유전 공학에 의한 복제 인간의 탄생 시도, 넓은 우주로 뻗어가는 공간의 확대, 현대 과학이 몰고 올 비극적 종말 등을 묘사하면서 우주적 새 인간형의 창조를 위해 몸부림치는 동안 집필 때마다 대주(大主)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고백한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계는 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증산은 일찌기 이같은 세상의 변화를 간파하고 새로운 진경 세계의 도래를 예고했다.

“내가 삼계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모든 도수를 뜯어 고치고 후천의 새 운수를 열어 선경(仙境)을 만들리라.”

흥미와 혼돈 속에 새 기운을 불어넣어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대순진리의 사상은 도와 절대 진리에 대해 묘사한 문학도들의 상상력과는 통하는 점이 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존재이며 능력자이신 대주(大主)께선 생성과 소멸이라는 두 개의 지팡이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룩해 보려고 태초부터 부단히 노력을 기울여 오셨다. 처음엔 모든 것이 그 대주님의 의도대로 되었지. 그런데 어느 때인가 의심이라는 안개가 뿌연게 끼기 시작하면서부터 탐욕과 증오와 쟁탈과 살륙이 횡행하기 시작했다. 평화롭던 마을엔 말을 탄 무법자가 출현하고 이 무법자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무장시켜 이웃 마을을 짓밟게 하고, 이 살륙의 대가로 재물, 권력, 지위, 명예를 갖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살인의 명수는 영웅으로, 제왕으로 추앙받는 별이 출현하기에 이르렀지”⁹⁴⁾

20세기말 인류의 생존 상황을 문명 비판적으로 제시해준 오인문의 소설은 인간 수호와 죽음의 문제, 인간과 신의 조화와 신성 문제 등 일반 종교들이 다루는 신관과 인간관을 두루 섭렵하고 있다. 문학 속에서 그려지는 신과 인간의 조화는 동양사상에서 말하는 도의 세계와 신선 사상, 그리고 여러 종교에서 그려지고 있는 신의 섭리와 인간의 도덕성-지고지선의 경지-까지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

많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의 인간복제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있지만 실상 이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다 더 본질적인 주제는 대순진리 사상에 의한 인류 구원 문제에 있다고 보겠다.

국내 ‘최초의 우주소설’로 평가되는 이 작품의 무대는 활짝 열린 우주 공간이다. 지구의 전생(前生)에 해당될 수도 있는 알골성(星)이 종말을 맞게 됐을 때 반신반인(半神半人)적 존재인 이 우주 공간의 「아버지」는 그 알골성을 재건할 지적 생명체를 지구에 옮겨 탄생시킨다. 그렇게 되어 태어난 존재가 「황불이 박사」와 「자칭 거물」이다. 선(善)의 상징인 황박사 앞에 나타난 아버지는 「신인조화」의 경지가 실현된 반신반인이다. 그는 이 우주 속에, 「도통진경」에 해당되는 「현자의 평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곳이 어디죠?”

“싸움과 근심이 없는 땅이란다.”

… 중략 …

“자, 귀한 시간이 너무나 값없이 흘러가고 있다. 내가 그 애를 잠재워

두긴 했지만 그 애가 오래잖아 이리 달려올 것이다. 횡방을 받기 전에
어서 이곳을 빠져나가자.”

“어디로 말씀입니까?”

“<현자들의 평원>으로……”

“그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스스로 너의 굳은 껍질을 벗어 던지고 새롭게 태어날 때 너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이란 본디 지극히 높게, 멀리, 그리고 아주 깊은 곳까지 볼 수 있는 존재였음을… 어느 때부터인가 그 인간들이 음식의 맛과 색욕과 지배욕과 손아귀 안에 움켜쥐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면서부터 높이, 멀리, 깊게 보는 능력은 필요 없게 되어 버렸으므로 그 기능이 퇴화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이 되어 버렸다는 사실도 너는 깨닫게 될 것이다.”

… 중략 …

“……내 아들이, 네게 지금 필요한 건 나에 대한 확신뿐이니라. 어젯밤에 그러했듯이 너의 믿음을 키워라. 내 손을 꼭 잡은 채 두 눈을 감고 정신을 한 곳에 집중하여 외쳐라. 믿습니다. …네 스스로 연단을 거쳐 온전한 능력을 길러야 하겠지만 그 능력을 기를 때까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지름길은 철저한 믿음뿐이니 어떡하겠느냐?” 95)

그리고 지구가 멸망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음양합덕, 해원상생에 있음을 밝힌다.

기독교와 같은 서양 종교에는 개혁 사상이 없다. 이 천지 우주는 땅 위의 모든 생명체까지 창조주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논리에 의해 전개된다. 그러나 대순진리의 『전경』에서는 이 우주의 개혁을 강조한다. 「개혁」이란 <천지가 처음으로 생김>의 뜻과 더불어 <천지가 어지럽게 뒤집혀짐>의 의미를 지닌다.

『하늘에 걸린 얼굴』에서 지적한 대로 이 우주의 나이는 2백억년 정도다. 그에 비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나이는 50억년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중 기독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간의 역사는 구약성서까지 포함해서 1만년 남짓이다. 그렇다면 50억년 중에서 불과 한 순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1만년을 제외한 지구의 역사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는 말인가. 거기에는 또다른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선천개혁>으로 표현했다고 보아 틀림이 없을 것이다. 이런 선천개혁의 역사적 전개에 대해 이 소설은

95) 같은 책, pp. 215~216

‘지구에도 전생(前生) 있다’ 라는 장에서 그려보인 뒤 전(前)지구의 멸망 역사에 해당되는 <알골별>의 최후 모습과 비교하며 반신 반인인 현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다.

“지구의 종말도 실상은 머지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알골별에는 없는 몇 개의 언어가 이 지구 위에는 있다. 희생, 봉사, 박애, 평화, 자비, 홍익인간, 해원과 상생, 음과 양의 조화로 큰 덕을 이루게 한다는 태극정신... 그런 어휘의 개념조차 알골별에는 존재하지 않았지. 하지만 지구엔 다행히 이런 개념을 깨달아 삶 속에서 실천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래를 낙관해도 무방할 것 같다.” 96)

지구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줄 종교 사상이 바로 대순 진리에서 강조하고 있는 음양합덕, 해원상생 등임을 앞의 신인조화와 함께 이 소설에서는 그 어휘까지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그러한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대주(大主: 上帝라고 봐도 무방. 필자 주)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근심과 걱정이 없는 <현자의 평원>(도통진경의 문학적 경지로 풀이해도 무방)에 이르게 됨을 문제의 소설 『하늘에 걸린 얼굴』에서는 그려보이고 있다.

더구나 이 소설은 작자 자신이 서문에서 ‘나는 집필 때마다 대주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고, 자료 수집 과정에서도 그 대주의 능력이 내게 작용하고 있음을 느꼈다. 이 작품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 존재에게 내 손을 맡겨 저절로 쓰여지게 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라고 고백한 점을 고려할 때 초월적 존재가 문학작품을 통해 도통진경의 일부분이나마 형상화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작용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게 해준다.

이처럼 도통진경에 이르는 것은 문학을 통해서든 종교를 통해서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을 최대 비원(悲願)이다. 증산은 신을 음, 인간을 양이라 하고, 이 음인 신과 양인 인간이 조화와 합덕을 갖지 못하면 인간계는 물론 신명계도 대립과 갈등, 그리고 분쟁만이 있게 되어 후천 선경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신과 인간의 조화는 우주의 시원과도 관련되는 것이며 신과 인간의 관계

정립, 나아가 앞으로의 우주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한 방향타가 된다. 신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과학적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과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한계 상황에서 존재의 근거는 무엇이며, 미래에 대해 행동 규칙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증산 자신이 구천상제로서 신이었지만 재계에 빠진 인류와 신명을 구제하고 후천선경을 건설하기 위해서 성육신(成肉身)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은 본래 자기 속에 신성(神性)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증산이 “인간은 창조적 존재이며 천(天)도 되고 신(神)도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같은 뜻이다. 앞서 <음양경>에서 “신령이 있고 사람이 있으니 신은 음이요 사람은 양이다. … 천지의 일이 모두 이 음양 중에 만물의 이름이 있으니 모두 이 음양 중에 마침내 천지의 음양이 변한다. 신인으로써 음양의 조화를 이룬다. … 신과 사람이 화합해야 만사가 이루어지고, 신인(神人)이 화합해야 온갖 일이 이루어진다. 신은 사람을 기다려 밝아지고, 사람도 신을 기다려 밝아진다. 음양이 서로 화합하고 신인이 서로 통한 다음에야 천도(天道)가 이루어지고 지도(地道)가 이루어진다. 신의 일이 이루어져야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일이 이루어져야 신의 일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 말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다.

대순 사상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사상이며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가운데 진리를 추구해가는 사상이다. 그같은 자아 탐구의 과정에서 인간 스스로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전통 동양 사상이나 여러 문화 작품을 통해서 본 것처럼 ‘도’라는 한길로 서로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대순 사상은 그 다기한 논쟁 속에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 그리고 신인조화를 통한 도통진경이라는 구체적인 인간 구원 사상을 설파했다는 점에서 인류 구원의 참 진리를 정립한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 론

대부분 종교는 최고 이상을 인류 구원에 두고 있으며 인간 존중의 사상을 밑바탕에 깔고 있다. 지금까지 미흡한 대로 종교와 문학을 통해 비교해본

도통진경의 세계를 논해 보았다. 특히 문학을 통한 도통진경의 구현은 앞으로 연구의 진전을 위한 시금석이 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함께 실었다.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사회는 타인과 조화를 바탕으로 한다. 이같은 환경을 사회 환경이라 한다면 종교와 문학에서 추구하는 환경은 정신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신의 문제를 떠난 사회 환경은 구성원인 인간의 행동 여하에 따라 지옥도 될 수 있고, 낙원도 될 수 있다.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이 극도로 나빠진 현대 물질 사회에서 정신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환경 파괴뿐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제한된 환경을 벗어나려는 꿈은 인류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상적인 낙원을 찾으려는 인간의 꿈은 과학이라는 수단을 통해 우주를 향해 나아가기도 했다. 그러나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봐도 우주의 티끌만한 부분조차 그 생성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게 현실이다.

태양계는 은하계의 중심에서 3만 광년이나 멀리 떨어진 변두리에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광활한 지구 밖, 혹은 태양계 밖의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가늠조차 할 수 없다. 은하계 안에만도 태양과 같은 항성이 수십만 개나 된다. 앞으로 몇 십년이 더 지난다 해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구, 인간과 동물이 어우러져 뛰노는 지구와 같은 곳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찾지 못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하지만 환경 문제, 폭력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노출되어 황폐한 삶을 살고 있다. 사람은 그저 생물학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환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같은 인류의 문제를 삶의 숙제로 인식하여 나온 것이 바로 문학 작품들이다. '인간 탐구'와 '인생 표현'을 양대 축으로 하는 산문 문학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주제로 삼고 있다. 따라서 문학은 기타 일반 예술과 인류 구원을 꿈꾸는 종교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고, 종교의 역할까지 일부 감당하는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 종교의 경우에는 다가올 미래의 재난을 예견하고 일찌기 종교를 통한 구원의 사상을 펼친 바 있다. 증산은 일찌기 앞으로의 세계가 후천 개벽의 시대임을 말하고 있다. 후천 개벽 시대(도수)의 특징은 첫째, 인과가 빠른 시대라는 것이다. 원인(因)에 따라 결과(果)가 이루어지기에 선한 행위에 선한 결과가, 악한 원인에 불행한 결과

가 나타난다는 인과를 두고 대순 사상에서는 과거 선천 시대에는 금생에 지어 내생에나 받았으나, 후천 시대에는 금생에 지은 것은 금생에 받고 내생에 미룰 것이 거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증산은 이미 지은 척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해원해야 한다고 했고 서로 맺힌 한을 풀어야 상생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대순진리의 종지는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네 가지이며, 이는 모두 후천세상을 주도하는 이념으로 표방된다. 오직 선하고 좋은 것만을 완성케 하는 음양합덕을 바탕으로 하여 신인조화가 이루어지고, 해원상생을 거쳐 마침내 풍요와 화합의 세계인 도통진경을 이룰 수 있다.

도란 인간이 따라야 할 법칙이며 자연의 원리이다. 동양 철학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꼽히는 공자는 주로 사람이 지켜야 할 규범, 인륜으로서 사용하여 후세에 이르기까지 유학자들은 이것을 추구하고 실천할 것을 목표로 하였다. 동곽자가 장자에게 도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물은 적이 있는데 장자는 “없는 곳이 없다”고 했다. 장자는 땅강아지와 개미에게도 도가 있고, 쓸모없는 들풀 같은 데에도 있으며 심지어 벽돌이나 똥오줌에까지 도가 있다고 했다.

도라는 것은 이처럼 어디에나 존재하나 함부로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도라고 이름짓는 것마저도 도가 아닌 절대적 세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천지가 변화함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만물을 이루는 데 어떠한 것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자나 장자는 도를 우주 만물의 근원, 근본원리, 즉 절대적 가까운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그들 학설의 근간을 이루었다.

「도」에 대해 공자는, “나의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고 했는데 ‘하늘의 길’에 대한 이러한 완전한 이해는 마침내 사람을 성숙시켜 하늘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깊은 마음 속의 열망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만든다. 공자는 자신이 일흔이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러한 경지에 도달했다고 주장해 도의 길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것인가를 말했다. 도덕이 땅에 떨어져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물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인간

관계를 질타하고 하루라도 참답게 사는 자세를 강조한 공자의 사상은 현대인을 향한 구도의 충고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철학에 따른 군자의 길은 자비를 말하는 인(仁), 정의감을 말하는 의(義), 존경과 사랑을 말하는 예(禮), 그리고 보다 성숙한 인간의 완성을 이르는 지혜(智慧)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장자 또한 생명 없는 질서보다 생명 있는 무질서를 더욱 사랑하였으며, 인생과 우주를 일관하는 생명이 약동하는 주체적 자아를 추구했다. 장자는 자기의 세속적 주관 혹은 소욕을 버리고 무궁한 자유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말하려 한다. 자유 경지의 도달만이 참된 자기 생명의 존중이라는 것이다. 무위자연(無爲自然)을 부르짖은 노자가 말한 도란 우주 본체와 우주 내의 모든 사물의 형성원리의 혼합체다. 그러므로 도는 형상이 없고,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불교에서는 고통(苦諦), 집(集諦), 멸(滅諦), 도(道諦)라는 네 가지의 성스러운 진리를 말하는데 이를 곧 사성제(四聖諦)라고 한다. 이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는 고통, 고통의 근원, 고통의 소멸,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이라는 것이다. 이같은 길이 곧 깨달음의 길이며 그 깨달음의 세계는 기쁨이 넘쳐 지속되는 세계이다. 이러한 세계를 불교에서는 니르바나(無餘涅槃)라고 한다.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라는 것도 사실은 겉모습만 그러한 것이고 실제로는 괴로움은 숨겨둔채 느끼는 것이다. 따라서 그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 원인을 알아야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그 괴로움이 인간의 원죄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한 인간은 괴로움을 잉태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손인 우리들도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얻고 천당으로 가려면 창조주를 영접하고 그 섭리에 따라야 한다. 부처가 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고 한 것과 차이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과 사랑의 실천,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와 자비의 실천 등은 선현들이 말한 도의 세계와 일맥상통한다. 라다크리슈난 같은 이가 말한 대로 “부처와 예수는 인간 영혼의 대변혁의 깃발을 한 사람은 힌두교에서, 또 한 사람은 유대교에서 들고 나온 장본인들”이라는 것이다.⁹⁷⁾

인간이 자신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와 불교, 기독교와 도교 등은 서로 통하는 점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불교와 유교, 그리고 기독교 등 각 종교는 도의 세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진리를 설파하고 있다. 대순 사상은 도를 알고 나면 음양합덕, 해원상생, 신인조화 등 도통을 구현하기 위한 제단계를 거쳐 마침내 도통의 진경 세계에 도달하게 된다고 했다. 문학적 상상력 역시 이같은 도의 개념과 도통진경의 세계를 구현하는 점에 있어서 통하는 바가 있다. 대순 사상은 역사의 변화를 기초로 하여 정립되었기 때문에 대순을 통한 도의 단계적 고찰은 보다 차원높은 역사 발전의 여러 법칙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지금까지 종교와 문학을 통해 비교해본 도통진경의 세계를 논해 보았지만 진정한 진리는 우주의 원리가 도수이며, 도수는 삼계를 순환하는데, 신명과 인간도 우주의 도수에 따라 순환하는 것으로 보는 대순진리의 큰 뜻으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앞에서 말한 음양합덕과 신인조화, 그리고 해원상생도 바로 이 우주의 원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통해 신인조화를 이루고 마침내 후천의 선경을 세워간다는 게 대순의 진리이다. 도의 끝까지 나아가면 마침내 이를 수 있는 세계, 대순의 이러한 세계관이 음양합덕 사상이고, 해원상생 사상이며, 신인조화 사상이다. 따라서 도통진경을 통해 인간세계의 완성을 이루고자 한 대순 사상은 인간과 우주의 변천을 하나로 통합한 순환 사상으로서 모든 종교의 진리를 아우르는 인류 구원 사상이 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1. 저 서

가. 한 국

-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전경(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9)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지침(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대순진리회 교무부(편), 대순진리회요람(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대순회보(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6)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7)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7)
대순사상학술원(편),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순사상학술원, 1998)
- 곽신환, 주역의 이해(서울: 서광사, 1990)
權 瑚 傭김/張立文, 道(서울: 동문선, 1995)
金容善 · 成晉基 · 李容煥 編, 人間과 價値(서울: 전남대출판부, 1994)
金殷洙 譯註, 桓檀古記(서울: 가나출판사, 1985)
김의경 傭김/Alighieri Dante, 新曲(서울: 해원출판사, 1998)
都珖淳 編, 道家思想和 道教(서울: 범우사, 1996)
로이 아모르, 성서 속의 붓다(서울: 정신세계사, 1988)
림영창 · 배용덕, 甌山神學概論(서울: 건강도서, 1982)
山下靜雄, 周易十翼의 成立と 展開
宋鎬洙, 韓民族의 뿌리思想(서울: 인간연합, 1983)
安昶範, 民族思想의 源流(서울: 교문사, 1995)
吳仁文, 하늘에 걸린 얼굴(서울: 문학저널, 1998)
李圭成 編, 동양철학, 그 불멸의 문제들(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5)
李成珪 譯/H. G. 크릴, 孔子-인간과 신화(서울: 지식산업사, 1996)
李完裁 · 許在允 · 申龜鉉 · 林洪彬 共著, 人間과 倫理(서울: 영남대출판부, 1997)

李載昌·역정·월포라 라후라 外, 現代社會와 佛敎(서울: 한길사, 1981)

李仁老, 破閑集(서울: 일지사, 1978)

張秉吉, 大巡宗教思想(서울: 대순종교사상연구소, 1987)

장순용 옮김/마스다니 후미오, 붓다의 가르침(서울: 고려원, 1993)

鄭炳碩 譯/高懷民, 周易哲學의 理解(서울: 문예출판사, 1996)

최준식 옮김/구보 노리따다, 道敎史(서울: 분도출판사, 1990)

馮友蘭, 中國 哲學의 精神-新原道-(서울: 송실대학교출판부, 1993)

허 인 옮김/Alighieri Dante, 신곡 I. II.(서울: 중앙미디어, 1996)

『周易』	『周易傳義大全』	『論語』	『老子』
『莊子』	『阿含經』	『聖經』	『中庸』
『孟子』	『桓檀古記』	『易』	『左傳』
『道德經』	『孔子』	『三國史記』	

나. 서 양

Alighieri Dante, *La Divina Commedia*.

W.Barrett, ed. *Zen Buddhism Selected Writings of D.T.Suzuki*.

Rada Chrishnan, *Oriental Religion & Western Thoughts*(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40)

2. 논 문

高南植, “典經에 나타난 冤의 樣相과 解冤” :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金鶴澤, “도덕 평가 기준에서 본 解冤思想” :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金正泰, “대순 진리의 宗旨에 관한 연구”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金正泰, “해원상생의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림영창, “내가 본 대순진리회: -4대종지는 오늘의 지도원리,” 대순회보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경오년 11. 30)
- 림영창, “解冤相生의 多元的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朴昇植, “政策研究의 解冤相生의 接近,”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朴龍哲, “解冤相生의 實現에 대한 考察,”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安鍾沄, “世界化時代와 相生倫理의 要請” :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安鍾沄, “倫理學 側面에서 본 解冤相生論,”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楊茂木, “大巡思想과 韓國政治: -解冤相生 思想을 中心으로,” 대순사상논총: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楊茂木, “天地公事와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救援眞理로서의 陰陽合德과 民主主義,” 대순사상논총: 제2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救援思想으로서의 神人調化,” 大巡思想論叢: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楊茂木, “통일 기반 사상으로서의 解冤相生,” 大巡思想論叢: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劉勝鍾, “解冤相生에 내포된 思想的 特性,”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尹起鳳, “解冤相生의 宗敎學的 理解,”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尹在根, “解冤相生의 실천방법에 대한 소고,”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李京源, “解冤相生의 의미와 天地公事,”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李恒寧, “解冤相生 思想의 現代的 意義” : 大巡思想論叢: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鄭大珍, “大巡思想 研究를 위한 提言,” 大巡思想論叢: 제1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6)
- 鄭大珍, “解冤相生의 理解,” 大巡思想論叢: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曹泰龍, “神人調化를 통해 본 修道의 意味,” 대순사상논총: 제3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7)
- 朱賢哲, “冤의 본질적 의미에 관한 연구,”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
- 崔東熙, “解冤相生의 새로운 理解” : 대순사상논총: 제4집(경기 포천: 대진대 대순사상학술원, 1998)